

제 1 교시

국어 영역

[1~4]

<1문단>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신비화되고 통속화되는가, 영웅에 대한 기억이 시대에 따라 어떤 변천을 겪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더 사실에 가까운 영웅'의 모습에 다가서려는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 필수적이라는 강한 워딩을 사용한 만큼, 글쓴이의 주장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1. 어떻게 영웅이 만들어지고, 2. 어떻게 영웅의 의미가 바뀌었는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웅을 둘러싼 신화가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

- 앞 문장에서 했던 말을 요약해서 받고 있습니다.

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특히 국민 정체성 형성에 그들이 간여한 바를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영웅을 만들고 그들의 초상을 새롭게 덧칠해 온 각 시대의 서로 다른 욕망을 읽어 내어 그 시대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획득한다.

-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 영웅은 국민 정체성 형성과 관련있다. 2. 영웅(역사)형성 시에 주관성이 반영되기도 한다. 즉, 계속 앞 문장, 앞 문단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같고 다른지를 계속 비교해야 합니다.

<2문단>

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 잔 다르크는 계몽주의 시대에는 '신비와 경건'을 가장한 바보 처녀'로 치부되었지만, 프랑스 혁명기와 나폴레옹 집권기에 와서는 애국의 ㉠화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민족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그 숭배의 열기가 더 달아올라, 19세기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잔을 '프랑스의 수호자'이자 '민중의 딸'로 재창조했다. 국경을 넘어 20세기 여성 참정권자들에게 잔은 '전투적 페미니즘'의 상징이었고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유관순 열사'로 기억되었다.

- 표이름으로 빨리 돌아오기 위해서는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문장의 경우 후대인들의 기억에 따라 달라지는 영웅의 특징에 대한 예시임으로 예시가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예시인지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문단>

영웅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추구하는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기억의 관리'가 부와 권력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 a와 못지않게 b가 어떠한가. 비교 기준인 a 보다 진짜하고 싶은 말인 b가 중요합니다. 즉, 이 글에서는 영웅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이다. 동시에 이는 기억과 ㉣표리 관계인 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4문단>

근대 역사에서 기억이 구성되고 가공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위는 '민족'이었다. 근대 역사학 자체의 탄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족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영웅은 중요한 기억의 터전을 차지해 왔다. 이때 영웅은 그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육화된 기호로서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나타난다.

- 많은 말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전 문단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영웅은 민족(사회)의 단위로 형성되고, 사회구성원들은 영웅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미리 이해하고 머리에 정리해왔다면, 이 문단은 매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줄이는 것입니다.

<5문단>

이때 영웅은 종종 '애국'의 덕목과 결부되었다. 한국에서도 봉건 시대에 충군의 이념에 충실했던 인물이 계몽 운동기에 들어서 구국의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박은식, 신채호 등 개화기 지식인들이 '민족정신'에 눈뜨면서 재발견한 이순신이나 을지문덕과 같은 영웅은 이제 '충군'이 아닌 '애국'을 ㉤지상 과제로 삼는다. 이 같은 근대의 영웅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묶어 주는 상상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영웅은 구성원 모두를 상하, 수평 관계 속에서 매개하고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미디어였다.

- 한국의 예시를 들어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1.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정답 선지>

- ⑤ 역사는 과거의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후대에 체계화된 지적 구성물이다.
- 길게 오답 해설을 했지만, 핵심을 파악했다면 바로 5번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핵심은 역사는 대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언제나 개념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답 선지>

- ① 역사는 익명의 대중이 이끄는 것이다.
- 익명이라,, 말도 안되는 선지입니다. 서양 같은 경우, 민족주의자들, 여성 참정권자들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를, 한국의 경우, 개화기 지식인들에 의해 달라진 평가를 제시하면서 대중을 지칭하였습니다.
- ② 역사는 현재의 세계를 목적으로 하여 진보해 온 과정이다.
- 역사의 목적은 그 당시의 국민 정체성 형성이고, 어쩌다 보니 현대에도 그러한 개념이 전해진 것입니다.
- ③ 역사는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 객관성 완전 아니죠. 주관적이고, 그래서 평가가 계속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④ 역사는 우연의 지배를 받으므로 필연적인 인과 관계로 파악되지 않는다.
- 우연이 아니라, 작정하고 대중이 영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2. ㉠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 선지>

- ③ 역사 소설을 읽고 실재한 사실과 문학적 허구를 가려 본다.
- 역사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재평가하는 것으로 ㉠의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3번 선지의 내용은 개인적 차원의 내용으로 사회적 차원과 관련있지 않습니다.

3. <보기>는 역사에 대한 헤겔의 입장에 대한 내용이다.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였을 때, 옳지 않은 것은? [3점]

- 관점 비교 문제는 선지를 파악하기 전에 각 관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선지>

- ③ 윗글은 헤겔과 같이, 역사학에서 사회적 목적의 민족정신은 실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헤겔의 경우, 무언의 실체에 의해 민족정신을 향해 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듯 보이지만, 민족정신은 실존하지 않고, 그저 개개인의 관점에서 역사를 파악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답 선지>

<보 기>

단일 실제처럼 보이는 역사는

- 보인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단일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못잡아도 뒤에서 설명이 나올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하지 않는다. 역사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 개개인의 합리적 행위가 우연히 타인의 방향성과 일치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의 출발점은 다수의 행복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 핵심은 하나로 보이지만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겠네요.

- ① 윗글은 헤겔과 같이, 역사를 이끄는 힘은 이성에 있다고 보았다.
- 윗글에서는 사회적인 권력 수단으로 역사를 제시한 바 있으며, 헤겔의 경우, 애초에 역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 ② 윗글은 헤겔과 같이, 목적론적 관점에서 역사의 형성과 발전을 설명할 수 있다.
- 윗글은 국민정체성, 민족정신, 헤겔의 경우 개인의 행복을 역사 형성과 발전의 목적으로 들었습니다.
- ④ 윗글은 헤겔과 달리, 역사 형성의 의도 측면에서 개인과 사회를 이원화하지 않았다.
- 그렇습니다. 윗글은 개인과 사회를 굳이 구분지어 설명하지 않고 역사가 민족정신을 고취한다는 흐름에 둘 다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헤겔은 사회 공중체 유지 및 민족 정체성 형성의 의도와는 다르게 개인은 행동하고 역사를 마주한다고 하였습니다.
- ⑤ 윗글은 헤겔과 달리, 역사의 목적은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 있다고 보았다.
- 앞선 선지에서 계속 이야기 해왔던 내용이자, 윗 글의 주제입니다.

4.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 선지>

- ② ㉠ : 본을 받을 만한 대상.

[5~8]  
〈1문단〉

어느 공장에서 길이가 7미터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자.

- 예시로 지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를 통해 필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파악해봅시다.

이때 가장 이상적인 제품의 길이는 7미터이다. 하지만 아무리 공정이 안정되고 설비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생산된 모든 제품의 길이가 하나같이 7미터가 되게 하는 것은 ㉠어렵고, 7미터를 중심으로 약간씩 오차를 갖기 마련이다.

- 공장에서 길이가 7미터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당연히 모든 제품의 길이가 7미터인 상황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차를 갖는 제품이 생산되기도 하기에 모든 제품의 길이가 7미터가 되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제품의 품질 특성값은 평균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성값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제품일수록 생산될 가능성은 점차 줄어든다.

- 길이가 7미터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당연히게도 7미터에 가까운 제품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을 것이고, 길이가 7미터에서 멀리 떨어진 제품일수록 생산될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겠네요.

여기서 품질 특성값들이 그 평균에서 떨어져 흩어져 있는 정도를 산포도라고 하며, 산포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

- 산포도는 품질 특성값들이 그 평균에서 떨어져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산포도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겠네요.

시그마( $\sigma$ )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로 그 값이 작다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품질 특성값이 덜 흩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균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시그마 값 역시 작을수록 우수한 공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2문단〉

모든 제품에는 나름대로의 규격이 있는데 이 규격은 일반적으로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으로 주어진다. 규격을 벗어나는 제품은 모두 불량품이 된다.

- 정해진 규격에서 벗어나는 제품이라는 것은 오차가 매우 크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불량품이 되는 것이겠네요.

원편의 그림처럼 두 공정 A, B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품질 특성값 평균이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의 중간인 목표값에 모두 일치하였다고 가정하자. A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산포도가 작아서 규격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없으나, ㉡B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산포도가 커서 규격을 벗어나는 불량품이 발생하고 있다.

- A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이 평균값 근처에 있지만, B 공정은 상대적으로 오차가 큰 제품도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A 공정은 산포도와 시그마값이 작다고, B 공정은 산포도와

시그마값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를 시그마의 배수로 표현할 때, A 공정은 시그마가 작아 그 배수가 큰 반면, B 공정은 시그마가 커서 A 공정에 비해 그 배수는 작다. 이와 같이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시그마의 몇 배가 되느냐에 따라 불량률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위의 예시에서 시그마값이 작을수록,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시그마 배수가 클수록 좋은 공정임을 알 수 있네요.

〈3문단〉

미국의 한 회사가 천명한 6 시그마 품질 향상 계획은 기본적으로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이 제품의 규격 평균으로부터 각각 6 시그마의 거리에 위치하도록 공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수준은 10억 개 중에서 2개만이 불량인 것으로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것이다.

-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이 제품의 규격 평균으로부터 각각 6 시그마의 거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공정을 의미하는 것이네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계나 원자재의 특성, 작업 환경 등의 원인에 의하여 품질 특성값의 평균이 목표값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대략  $\pm 1.5$  시그마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에 6 시그마의 거리에 위치하도록 공정을 관리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다는 한계가 제시되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6 시그마 수준이 성취되면 불량률은 100만 개 중에서 3.4개 이하로 관리될 수 있게 된다. 이 수치도 충분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6 시그마 수준은 새로운 품질 기준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 그렇다 하더라도 불량률을 매우 훌륭하게 관리할 수 있으므로 6 시그마 수준은 주목받고 있는 것이네요.

〈4문단〉

이와 같은 통계적 개념인 6 시그마를 조직이 도달해야 하는 품질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최근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6 시그마 경영의 출발점이다.

- 이러한 의의로 인해 많은 조직이 6 시그마 경영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네요.

6 시그마는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6 시그마 경영은 아주 적은 불량에 대해서도 그것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활동에 초점을 둔다.

- 불량률을 6 시그마라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주 적은 불량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겠네요.

따라서 특정한 공정을 바꾸는 것처럼 ㉞부분적인 처방보다는 주로 시스템 자체를 개선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 필요하다면 6 시그마 수준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도록 아예 시스템 전체를 새로 설계하기도 한다.

-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시스템 전체를 새로 설계하여 불량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불량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6 시그마를 도입한 세계적인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품질 문제 야기되는 비용이 감소하였으며,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되었고,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 이러한 6 시그마 경영으로 인해 세계적인 기업들은 불량품으로 인한 비용 감소, 품질 개선, 고객 만족도 향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네요.

#### 지문 코멘트

- 시그마 등의 용어가 낯선 학생이더라도 이해를 돕는 예시를 잘 활용했다면 지문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난이도의 무난한 지문입니다. 하위권으로 갈수록  $\pm 1.5$  시그마, 10억 개중의 2개 등의 구체적인 수치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선지에서 언급됐을 때 다시 돌아와서 봐도 충분합니다. 대신 주제에 더 가까운 중심 내용에 더 집중해서 읽는 습관을 들이는 연습을 충분히 한다면 더 어려운 지문도 잘 읽어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수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그래프를 보면 겁부터 먹는 경향이 있는데 그림 자료는 어디까지나 지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 지문의 내용과 연결해가며 대략적인 의미라도 파악해보는 연습을 꼭 해봅시다.

5.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Tip : 이처럼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는 '지문을 꼼꼼히 읽어서 이 선지의 내용을 찾아야겠다!'가 아니라 스스로 선지의 내용을 생각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답 선지>

㉞ 공정의 목표값과 품질 특성값의 평균은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 현실에서는 여러 원인으로 인해 공정의 목표값과 품질 특성값의 평균을 일치시키기 어렵습니다.

<오답 선지>

㉝ 품질 관리의 기술은 통계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 품질 관리의 기술은 산포도, 시그마, 표준 편차 등의 통계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㉟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불량률이 적은 우수한 공정으로 판정하게 된다.

-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품질 특성값이 덜 흩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량률이 적은 우수한 공정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6 시그마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6 시그마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불량품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활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평균에서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표준 편차의 6배이면 공정은 6 시그마 상태에 있다.

- 6 시그마 품질 향상 계획은 기본적으로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이 제품의 규격 평균으로부터 각각 6 시그마의 거리에 위치하도록 공정을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6.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정답 선지>

㉝ 요즘 그가 바빠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오답 선지>

㉡ 그 사람은 까다로워 대하기가 어렵다.

- 상대가 되는 사람이 거리감이 있어 행동하기가 조심스럽고 거북하다.

㉢ 선생님의 소설은 모두들 어렵다고 합니다.

- 말이나 글이 이해하기에 까다롭다.

㉣ 어려운 살림에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합니다.

- 가난하여 살아가기가 고생스럽다.

㉤ 그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청소년기를 어렵게 보냈다.

- 겪게 되는 곤란이나 시련이 많다.

7. <보기>의 과정을 통해 품질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 ㉢의 정보가 생성되는 단계는? [1점]

<보 기>

가. 정의 단계 : 중요한 품질 특성들 가운데 개선 대상을 선정한다.
나. 측정 단계 : 측정 방법을 결정하여 현재 품질의 상태를 측정한다.
다. 분석 단계 : 현재 품질의 상태와 그 영향 요인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한다.
라. 개선 단계 :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찾는다.
마. 통제 단계 : 개선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정답 선지>

- ㉠                      ㉢  
 ㉣    나                라

- ㉠ : B 공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품질의 상태를 측정하는 '측정 단계'에서 생성되는 정보입니다.
- ㉢ : 부분적인 처방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찾는 '개선 단계'에서 생성되는 정보입니다.

8.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을 할 때, 강사가 <보기>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시그마 수준	면적	비용	시간	거리
3 시그마	동네 슈퍼마켓	$\frac{270\text{만 원의 부채}}{10\text{억 원의 자산}}$	$\frac{3.5\text{개월}}{100\text{년}}$	미국 대륙 횡단 거리
4 시그마	가정집 거실	$\frac{63,000\text{원의 부채}}{10\text{억 원의 자산}}$	$\frac{2.5\text{일}}{100\text{년}}$	고속도로 45분 거리
5 시그마	공중전화 박스	$\frac{570\text{원의 부채}}{10\text{억 원의 자산}}$	$\frac{30\text{분}}{100\text{년}}$	가까운 주유소까지의 거리
6 시그마	다이아몬드 반지 알	$\frac{2\text{원의 부채}}{10\text{억 원의 자산}}$	$\frac{6\text{초}}{100\text{년}}$	네 걸음

Tip : <보기>가 있는 문제는 반드시 선지로 빨리 넘어갈 것이 아니라 보기를 먼저 스스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알아내도록 합시다.

<보기> 분석

- 시그마 수준이 높아질수록 면적, 비용, 시간, 거리가 모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그마 수준이 높아질수록 불량률이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답 선지>

- ㉡ 시그마 수준에 따른 불량률의 크기

[9~13]

〈1문단〉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피해를 구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바로 물음을 던지면서 지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을 독해 목표로 삼아야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명예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 손해 배상과 같은 금전적인 구제와 아울러 비금전적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한 방법이 나열되었네요.

이러한 비금전적인 구제 방식의 하나가 '반론권'이다.

- 개념이 제시되었을 때 범주를 먼저 잡고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한 방법 중 비금전적인 구제의 하나로 반론권이 제시되었다고 이해해봅시다.

반론권은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된 언론 보도 내용 중 순수한 의견이 아닌 사실적 주장(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에 대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지면이나 방송으로 반박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반론권이 정의되었는데 이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권리네요.

반론권은 일반적으로 반론 보도를 통해 실현되는데, 이는 정정 보도나 추후 보도와는 다르다.

- 이처럼 지문에서 개념을 확실히 구분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반론 보도를 정정 보도, 추후 보도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정 보도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며, 추후 보도는 형사상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 당사자의 무혐의나 무죄판결에 대한 내용을 보도해 주는 것이다.

- 정정 보도는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고, 추후 보도는 당사자의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추후에 보도하는 것이네요. 반론 보도와 확실히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문단〉

반론권 제도는 세계적으로 약 30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반론권 제도는 의견에도 반론권을 적용하는 프랑스식 모델이 아닌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반론권을 부여하는 독일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

- 1문단에서 반론권은 순수한 의견이 아닌 사실적 주장에 대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반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독일식 모델을 따르는 것이네요.

우리나라 반론권 제도의 특징은 정부가 반론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론권 도입 당시 우리 정부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행사가 언론에는 신뢰도 하락과 같은 부담을 주지 않고, 개인에게는 신속히 피해를 구제 받을 기회를 주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반론권을 행사한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반론 보도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기도 하겠네요.

이에 대해 언론사와 일부 학자들은 법정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편집 및 편성권을 침해하여 궁극적으로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 그러나 반대되는 견해도 존재하네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행사는 언론사를 견제하는 장치이므로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문단〉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반론권 존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반론권은 잘못된 사실을 진실에 맞게 수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자가 문제가 되는 기사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게재하는 권리로서 합헌적인 구제 장치라고 보았다.

- 헌법재판소는 반론권을 합헌적인 구제 장치라고 보아 반론권 존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반론권 제도를 이른바 ㉠무기대등원칙(武器對等原則)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사회적 강자인 언론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동등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균형 유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 무기대등원칙은 쉽게 말해 서로의 무기가 대등해야 한다는 원칙이네요. 대법원은 일반인이 언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이므로 반론권을 통해 일반인을 보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문단>

반론권 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할 수 있으며, 두 기관에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 반론권 청구의 방법이 나열되었네요.

이때 반론권은 해당 언론사의 잘못이나 기사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 반론권은 기사 내용의 진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라면 청구할 수 있는 특징을 갖네요.

언론 전문가들은 일부 학자들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관련된 분쟁은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언론 전문가들은 반론권 청구의 방법 중 법원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중재의 합의율과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사람들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청구 활용률을 높이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의 합의율과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지문 코멘트

- 반론권, 정정 보도, 추후 보도 등의 단어들을 일상에서 몇 번 들어봤다고 해서 느낌으로 비비는 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해요. 어쭙잖은 배경지식보다는 지문의 서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꼭 합시다. 반론권이라는 개념을 지문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지문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해가 힘들었을 겁니다. 반드시 서술된 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9.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Tip : 논지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는 글을 제대로 읽었다면 한눈에 들어오는 선지가 있을 것입니다. 선지를 하나하나씩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직감적으로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답 선지>

④ 개념을 정의한 후 대립되는 주장을 소개하고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 반론권을 정의한 후 반론권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정부와 부정적인 언론사와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재의 합의율과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답 선지>

① 외국의 사례를 열거하여 공통적인 논지를 도출한다.

- 프랑스와 독일의 모델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공통적인 논지를 도출하지는 않았습니다.

② 일반인의 상식을 제시한 후 이를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 일반인의 상식과 비판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③ 새로운 이론을 통해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해석한다.

- 새로운 이론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⑤ 현상이나 사실을 설명한 뒤 필자의 생각과 반대되는 견해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 언론사와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필자의 생각과 반대되는 견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장단점을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10. 위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답 선지>

②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경우에도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다.

- 반론권은 해당 언론사의 잘못이나 기사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사실적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답 선지>

① 반론권 제도는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였다.

-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③ 피해자는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④ 반론권은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이나 단체, 조직도 행사할 수 있다.

-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⑤ 반론권은 문제가 된 보도와 같은 분량의 지면이나 방송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11. [A]에 근거하여 볼 때, 반론 보도문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것은?

<정답 선지>

② OO 연구소의 B 소장은 '경제 회복 당분간 어렵다'는 취지의 본지 인터뷰 기사 내용에 대해, 이는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대목만을 인용하여 '경기 부양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밝혀 왔습니다.

- 기사에서 다른 사실적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므로 반론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답 선지>

① 본지는 2008년 1월 1일자 3면에서 공무원 A씨가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09년 4월 20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 형사상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 당사자의 무죄판결에 관한 내용 보도이므로 이는 추후 보도에 해당합니다.

③ C 기업은 해당 기업에서 제작한 핵심적 기계 장치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본지의 보도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전해 왔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기계 자체가 아닌 사용상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업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정정 보도에 해당합니다.

④ 본지는 D 병원장의 예를 들어 병원들이 보험료를 부풀려 신청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D 병원장은 기사에서 지적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알려 왔으며, 확인 결과 기사의 D 병원장은 E 병원장의 오기(誤記)로 드러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정정 보도에 해당합니다.

⑤ 본지는 F 금융공사가 미국보다 비싼 학자금 대출 금리로 부당한 이익을 남긴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F 금융공사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학자금 대출 상품의 금리보다 자사의 금리가 더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수정합니다.

-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정정 보도에 해당합니다.

12. ㉠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Tip : 이처럼 특정 개념을 단독으로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다는 것은 지문 독해 전에 파악하고 가면 좋습니다. 이미 출제된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독해 과정에서 해당 개념에 조금 더 집중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내려고 노력해봅시다.

<정답 선지>

①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무기대응원칙의 취지는 상대적 강자로부터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약자인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기대응원칙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오답 선지>

② 모성 보호를 위해 산모에게 일정 기간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 산모에 대한 보호가 나타나지만, 상대적 강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③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구청에서 무료로 놀이방을 운영한다.

-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나타나지만, 상대적 강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④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고령자에 대한 보호가 나타나지만, 상대적 강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실시한다.

-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나타나지만, 상대적 강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3. '반론권' 제도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Tip : 최근 자주 출제되는 비판하기 문제입니다. 비판하기 문제의 경우 각각의 관점의 주장과 근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답 선지>

③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행사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를 과도하게 보호하여 무기대응원칙을 역으로 해칠 수 있다.

- 상대적 약자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반론권 제도가 당사자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면 역으로 언론 자유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적절하게 비판한 선지입니다.



<오답 선지>

- ① 피해를 입은 자가 반론권을 행사하더라도 잘못된 사실을 진실에 맞게 수정할 수 없다.  
- 이는 반론권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설명이지, 비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② 경쟁 언론사에서 반론권 제도를 악용해 순수한 의견에도 무분별하게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반론권 제도는 순수한 의견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④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권을 행사한다면 개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 이는 반론권 제도에 대한 설명이지, 비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⑤ 반론권 청구를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에 동시에 신청할 경우 일반인은 언론을 대상으로 균형 유지 수단을 제공받을 수 없다.  
- 지문의 내용과 무관한 선지입니다.

[14~17]

<1문단>

일반적인 청력 검사는 검사받는 사람의 협조가 없으면 시행하기 힘들다.

- 여기서 지문의 흐름을 사실상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력 검사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겠구나. 그 검사는 협조 없이도 시행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귀의 소리(otoacoustic emissions)'를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은 1978년 데이비드 캠프에 의해 귀에서 소리를 방출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면서 발달하였다.

<2문단>

특정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식적인 행동은 생리학적으로 내이(內耳)의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세포의 역할로 설명할 수 있다.

- 포함관계는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아요. 섞어서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포유동물의 청세포는 외부의 소리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 특정 음파의 소리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 핵심 용어의 역할이니까 체크해두어야겠조

이 과정에서 '귀의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는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이다. 과거에는 '귀의 소리'를 외부 소리에 대한 '달팽이관의 메아리'로 여겼다. 하지만 주어진 외부 자극 소리로 발생하는 메아리보다 음압이 더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귀의 소리'를 단순한 메아리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른쪽 귀에만 외부 소리 자극을 가했는데 왼쪽 귀에서도 '귀의 소리'가 발생한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 두 가지 근거를 넘버링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근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귀의 소리는 청세포가 낸다는 것입니다!

<3문단>

이러한 '귀의 소리'는 청세포에서 발생하여 기저막을 따라 난원창으로, 다시 청소골을 통해 고막과 외이도로 전달된다.

-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렇구나 여기 위치에 귀의 소리의 경로가 나와있네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소리는 두 종류의 외부 소리를 이용하여 청세포를 자극한 후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할 수 있다. 소리 자극으로는 여러 주파수가 섞인 복합음이나 두 주파수 ( $f_1$ 과  $f_2$ ,  $f_1(f_2)$ )만으로 이

루어진 조합음을 이용한다. 전자(복합음)에서 발생하는 '귀의 소리'는 4k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되는데, 그 소리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개인별로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다. 후자(조합음)에서 발생하는 '귀의 소리'는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되며, 특정 주파수 대역( $f_x = 2f_1 - f_2$ ,  $x =$  최대 '귀의 소리')에서 가장 크다.

- 은근슬쩍 지문이 구분되어 서술되고 있네요. 뭉쳐 읽지 않도록 표시를 해야겠어요.

<4문단>

청세포는 작업장의 소음과 같은 특정 주파수나 약물 등에 반복 노출되면 손상될 수 있다. 청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청력 손실이 일어나고 '귀의 소리'도 감소한다. 청세포 손상이 진행되어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귀의 소리'도 사라진다.

<5문단>

'귀의 소리'는 조용한 환경에서 마이크를 외이도에 장착하여 측정한다. ㉡'귀의 소리' 측정 기술을 활용하면 검사 받는 사람의 협조 없이도 청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몇몇 국가에서 신생아의 청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 검사에 이용되고 있다.

- 1문단을 회수하고 있어요. 검사받는 사람의 협조가 없어도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문 코멘트>

- 글의 구조가 예뻐요. 1문단에서 한 이야기를 전반에 걸쳐 녹여낸 후, 마지막에서 한 번 더 신생아의 예시를 들어 협조 없이도 검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혹시, 글의 내용이 이해 안 되었을 수도 있어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청세포 손상 -> 청력 손실 -> 귀의 소리 x
- 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귀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청세포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조?

14. 뒷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선지>

- ⑤ 달팽이관이 손상될 경우, 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 달팽이관 안에 청세포가 있는데, 달팽이관이 손상되면 청세포가 정상작동하지 못해 귀의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어요.

<오답 선지>

- ① 청세포는 수축과 이완을 통해 민감도를 증가시킨다.
- 전형적인 잘못 짚짓기 선지에요. 청세포는 1. 외부소리 감지 2. 수축이완을 통한 민감도 증가의 역할을 합니다.
- ② 마이크론의 위치는 '귀의 소리'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귀의 소리를 제대로 측정하려면 마이크론을 외이도에 장착하여 측정해야 합니다.
- ③ 신생아의 경우, 체내에 청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
- 신생아의 청력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체내에 청세포가 있고, 이 청세포가 귀의 소리를 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 ④ 청세포에서 발생한 '귀의 소리'는 기저막을 통해 고막으로 전달된다.
- 두 가지 포인트를 체크해야 합니다. 1. 귀의 소리가 청세포에서 발생했는가 2. 기저막을 통해 고막으로 전달되는가 지문에 의하면 청세포에서 발생한 귀의 소리는 (기저막-난원창), (청소골-고막, 외이도)를 통해 전달됩니다.

15. ㉠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 지문을 읽을 때 넘버링을 잘 했다면 헛갈리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1. 외부 자극 이상의 소리 관찰 2. 자극에 대한 반응 결과 이 두 가지를 살피면 되겠습니다.
- 문단별 청킹에 주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문에 있었던 내용이네를 넘어 왜 이 부분이 나왔는지, 뒤에 대한 설명인지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 선지>

- ② 한쪽 귀에 외부 소리 자극을 가했을 때 반대쪽 귀에서도 '귀의 소리'가 발생한다.
- 두 가지 근거 중 두 번째 근거에 해당합니다.

<오답 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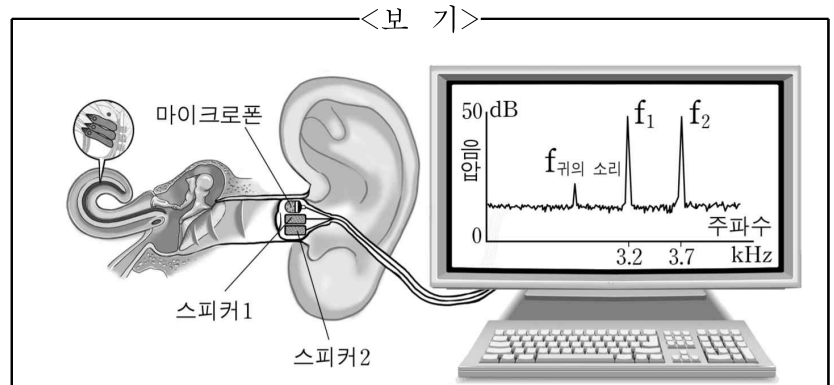
- ① 외부에서 소리 자극을 가했을 때 귀에서 소리가 측정된다.
- 측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에서 자극을 가했고, 어디를 통해 반응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 ③ '귀의 소리'는 청세포에서 기저막을 따라 난원창으로, 다시 청소골을 통해 고막과 외이도로 전달된다.
- 다만,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라는 근거가 아닐 뿐입니다.

④ '귀의 소리'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된다.

- 귀의 소리는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특정되어 애초에 사실여부부터 틀렸습니다.
- ⑤ '귀의 소리'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개인별로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다.
- 3번 선지와 같은 이유입니다.

16. <보기>는 두 주파수의 조합음을 이용하여 '귀의 소리'를 측정하는 장치를 그린 그림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간혹, 보기 문제의 발문을 넘겨 읽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발문에서도 힌트가 있습니다. 조합음과 복합음처럼 말입니다. 시험지에서 필요없는 단어는 없습니다. 모든 글을 꼼꼼히 읽는 습관을 가집시다.)



<정답 선지>

- ① '귀의 소리'는  $f_1, f_2$  자극 소리보다 빨리 감지될 것이다.
- 빠른 감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소리의 크기라면 모를까요. 헛갈리지 맙시다. 크기와 속도는 다릅니다.

<오답 선지>

- ② 외이도가 막혔을 경우 '귀의 소리'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 귀의 소리가 외이도로 전달되고 외이도에 마이크론을 장착해 귀의 소리를 측정하니 그렇겠군요.
- ③ 마이크론을 통해서 감지되는 소리는 자극 소리, 메아리 소리, '귀의 소리'이다.
- 귀의 소리를 단순히 메아리로 보기 어렵기에 메아리를 구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 ④  $f_1$ 이 3.2 kHz,  $f_2$ 가 3.7 kHz일 때 발생하는 '귀의 소리'의 음압은 2.7kHz에서 가장 크다.
- $f_x = 2f_1 - f_2$  공식을 대입하면  $6.4 - 3.7 = 2.7$  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⑤ 스피커를 통하여 두 주파수의 소리 자극을 가하고, 마이크론을 통하여 감지되는 소리를 측정한다.
- 조합음에 대한 설명이자 귀의 소리 측정 방식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17. ㉠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청세포를 통해 청력 검사를 진행하는 이유를 아우르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5번의 경우, 청세포가 파괴된 경우 귀의 소리를 이용할 수 없기에 아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정답 선지>

- ㉠ 청세포가 파괴되어 인공 달팽이관 이식을 받은 사람의 청력을 평가할 경우

[18~21]

<보기> 독해

—<보 기>—

자아 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아의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발견한 후 이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 보기를 통해, (가), (나) 시를 읽으며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 시에서는 상징적 시어로 표현된 자아의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찾아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나) 시에서는 자신의 삶을 투영한 외부의 상징적 존재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가) 작품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는 점에서, 실제 상황이 아님을 발견하고, <보기>에서 제시한 것을 통해 자아 성찰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 백골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자아 성찰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백골이 부정적인 자아와 긍정적인 자아 둘 중 어느 것을 상징하는지는 '아름다운 혼을 잃었을 때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혼이 긍정적인 자아를 상징하기에 백골은 자연스레 부정적인 자아를 상징하게 됩니다.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 지조 높은 개는 어둠을 짓고, '나'를 쫓고 있습니다. 어둠을 짓는 개가 쫓는 존재는 부정적인 나, 즉 백골입니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郷)』 -

(나) 작품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 까마귀와 까치가 대비되어 시가 전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아는 까마귀와 까치 중 무엇으로 상징되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낱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굽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 까치를 부정적인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까치는 화자의 부정적인 자아를 상징하며, 까마귀는 긍정적인 대상, 즉 자신이 거듭나고 싶어 하는 긍정적인 대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을 테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 '하얗다'라는 눈의 속성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화자는 검은 까마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습니다.

- 오세영, 『자화상·2』 -

\* 형형한 :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며 밝은.

(다) 작품

[A]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 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 제목을 통해 시의 대상이 멸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딱딱한 것들은 멸치를 의미하여, 멸치는 굳어지기 전, 바닷속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던 존재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B]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 그물이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던 멸치를 떼어냈고, 햇빛에 말라가는 멸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 멸치의 생명력이 사라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햇볕이 멸치의 생명력을 앗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D] 지금 젓가락 끝에 각두기처럼 딱딱하게 잡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E]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말라 굳어버린 멸치이지만, 등과 지느러미에는 여전히 바다가 있고 생명력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 김기택, 『멸치』 -

1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선지>

-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가 - 고향, 또 다른 고향 / 나 - 먼 설원, 인가의 안마당 / 다 - 건어 물집, 바다

<오답 선지>

- ①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가,나,다 전부 X 영탄이 사용된 부분에서 정서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 ②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가,나,다 전부 동일한 시행의 반복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 ④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가,나,다 전부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가,나,다 전부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어있지 않습니다. 나, 다는 비판적인 태도가 나와 있지만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아 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아의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발견한 후 이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정답 선지>

- ⑤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 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군.
- 백골이 함께 있는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만, 까마귀가 바라보는 (나)의 먼 지평선은 오히려 화자가 지향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이 아니므로 오답선지 입니다.

<오답 선지>

- ① (가)의 '들여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 보기에 (가)에는 부정적 자아와 긍정적 자아를 상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골은 부정적 자아, 아름다운 혼은 긍정적 자아를 상징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골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부정적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적 시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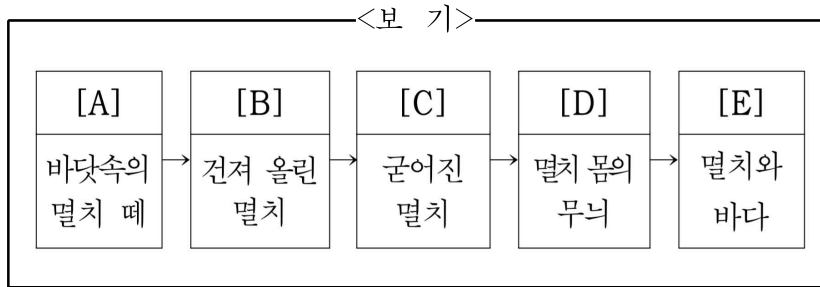
- ②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
-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 즉 백골과 대비되어 화자가 백골 몰래 아름다운 혼을 지니고 또 다른 고향으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 ③ (나)에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 까마귀는 화자가 되고 싶은 존재입니다. 먼 설원을 바라보는 까마귀의 모습에서 지향하는 삶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④ (나)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한 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보기에서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을 단절하고 싶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에서 까치는 부정적인 존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단절하고 싶어 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정답 선지>

- ② 본질을 가리는 속성을 통해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
-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 눈은 긍정적 자아를 상징하는 까마귀의 검은 속성과 대비되어 감추고 속이는 하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기에 2번이 정답 선지입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시상 전개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선지>

④ [D]는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마른 멸치의 몸에 남은 무늬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묘사한 게 아니기에 오답 선지입니다.

<오답 선지>

① [A]에서 멸치 떼의 유유한 움직임은 '무수한 갈래의 갈'과 연결되어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굳어지기 전의 살아있는 멸치들은 무수한 갈래의 갈처럼 자유로이 움직였던 존재들이기에 옳은 선지입니다.

② [B]에서 '그물',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외부 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하고 있다.

-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로 인해 부드러운 물결, 즉 멸치가 팔딱거리다가 길을 잃었다는 표현으로 생명을 잃어 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③ [C]는 멸치가 본래의 속성을 잃어 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부드러이, 자유롭게 움직였던 멸치가 말라가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본래의 속성을 잃어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⑤ [E]는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을 통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돌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멸치의 원래 모습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다고 표현함으로써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22~25]  
S#01

무슨 관청 같은 집도 화산택이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 아들을 만난 반가움보다도 수세미처럼 엉클리는 심사를 주체할 수 없었다.

빨간 스웨터를 입고 너덧 살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말끄러미 화산택이를 바라보고,

“아버지, 이거 누고 응?”

화산택이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손녀딸이다.

“할매다!”

“우리 할매?”

“음!”

아들은 맥없는 대답을 하면서 현 고무신 한 켤레를 내왔다. 화산택이는 걸레로 터실터실 분 발뒤꿈치 더더기를 훑치면서,

“그렇기, 나고는 침 보니…….”

하는데, 아들은 손끝에 **짚세기**를 걸고 나가 쓰레기통에다 던져 버렸다. 고무신이 대견찮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길 걷는 데는 짚세기가 고작인데 하니 아직 날도 안 드러난 짚세기가 화산택이는 못내 아까웠다.

**다다미방**도 어색했지만, 눈이 부시도록 번들거리는 의롱이 두 개나 놓였고, 그 옆에는 앉은키만 한 경대도 놓였다. 벽에는 풀기 없는 무색옷들이 쭈르르 걸렸다. 모든 것이 낯선 것들이었다. ㉠모든 것이 손도 못 댈 것 같고 주저스럽고 조심스럽기만 했다. 우선 어디가 구들목이며 어디 어떻게 앉아야 할지, 마치 종이 상전 방에 불러 온 것처럼 앉을 자리부터가 만만치 못했다.

- ‘화산택이가 ‘아들’의 집으로 가게 되네요. 아들은 화산택이가 신고 온 짚세기를 버리고 고무신을 내주게 돼요. 고무신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짚세기를 아까워하는 화산택이의 모습입니다. 화산택이는 아들의 집에 모든 것들이 낯선 것이라고 해요. 새로운 것들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는 화산택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산택이는 구시대적 인물, 아들은 신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S#02

화산택이는 아들과 마주 앉고, 며느리는 저만치 떨어져 양말을 기웠다. 모두 말이 없다. 손녀만이 제 아버지 등에 매달렸다. 제 어미 젖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하는 것을 눈으로 좇고 있던 화산택이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내 정신 바라.”

그러면서 옆에 둔 보통이를 끌어당겨 풀기 시작했다. 더깨더깨 기운 피죄죄 때 묻은 버선을 들어내고 검은 보통이를 또 하나 들어냈다. 들어낸 보통이를 풀어 헤치고 아들과 며느리 어중간에 밀어 놓으면서,

“목어 바라, 꿀밤(도토리)떡이다. 급히 하느라고 진도 덜 빠진 거로 해 노니 좀 딸딸하다만…….”

그러고는 한 덩이를 떼서 손녀를 주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을 대지 않는다.

“애가 하도 즐긴다 싶어 해 왔다. 벨 맛은 없어도 귀한 거니

목어 바라!”

며느리는 힐끗하고 궁둥이만 달짝할 뿐이었고, 아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한번 씹어 보던 손녀도 그만 폐쇄하고는 도로 갖다 놓는다. 그러자 아들이,

“저 방에 자리해라. 엄마 곤하겠다!”

“괜찮다. 벌써 잠이 오나!”

“일찍이 자소!”

이래서 화산택이는 몇 해를 두고 버른 아들네 집이었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쌓이고 쌓인 이야기를 할 사이도 경황도 없었다.

후끈후끈한 방에서 곤하면 입은 채 굴러 자던 습관은, 휘높은 판자 천장이며, 유리 바른 문이며, 싸늘해 보이는 **헛가루 벽**이며, 다다미방이 잠을 설레었다. 화산택이는 자꾸만 쓸쓸했다. 뺨을 쥐었다가 놓친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자식도 강보에 자식이지, 쫓쫓.’ 돌아놓는다. ㉡건넌방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저거 조면\* 그만이지.’ 또 고쳐 누웠다. 애써 잠을 청해 본다.

그러나 잠 대신 화산택이는 어느새 오리나무 숲 사이로 황토 고갯길을 넘고 있다.

보리밭이 곧 마당인 낡은 **초가집**이다.

빈대 피가 맺일처럼 급한 **도벽**, 매주 뜨는 냄새가 코를

[A] 찌르는 **갈자리 방**에서 손자들이 아랫도리 벗은 채 제멋대로 굴러 자고, 축물 사발을 옆에 놓고 신을 삼고 있는 만아들, 갈퀴손으로 누더기를 집고 있는 만며느리, 화산택이는 그만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다. 아들의 등을 쓰담아 기침을 내려 주고 며느리와 무르팍을 맞대고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질 것만 같다.

- 화산택이는 손녀를 생각해 꿀밤떡을 만들어 오지만 아들 내외는 거들떠도 안보고 손녀도 먹다가 뱉습니다. 계속 구세대와 신세대가 비교가 되는 모습이에요. 아들은 화산택이를 빨리 재우려고 합니다. 화산택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화산택이는 방에서 아들을 원망하지만, 자기들이 좋으면 그만이라며 다시 잠을 청해봅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요.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잠 대신 다른 생각을 합니다. 만아들네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생각을 해요. 현재의 상황과는 대비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를 통해 화산택이가 현재 있는 공간을 매우 불편해하고 원래 있던 공간으로 가고 싶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S#03

또 뒤쳐놓는다.

‘아무리 시에미가 시에미 같지 않기로니 침 보는 시에미에게 인삿절도 없이, 본바없는 것 같으니, 그래도 마실 사람들은 작은 아들 돈 잘 벌고 하리갈레\* 메뉴리 봤다고 부러하더라만, 시장처럼 가고 가시롭다. 지가 탈기 없는 것도, 신앙기가 있는 것도 다 기집 탓이지 머고. 여태껏 땅 한 뼘기 못 사는 것도 안살림 잘못 사는 탓이지 머고.’ 화산택이는 눈꼬리만 따잡고 잠은 점점 멀어갔다.

‘지만 하더라도 일본서 근 십 년 만에 나왔으면 그만 지 형 말대로 농사나 짓고 수더분한 색시나 골라 장가들었으면 등 따시고 배 부릴 꺼로 머 공장을 하느니 하고 날뛰 댕기더니.’

화산택이는 어서 날이 새면 싶었다. 잠도 안 오거니와 아까부터 뒤가 마려운 것을 참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은 언제



셀지 모르겠고 뒤는 자꾸 급해 왔다. 화산댁이는 참다못해 조심  
 조심 더듬어 부엌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다시 더듬어 밖으로  
 나갔다. 비는 그쳤고 갈라진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다. 뒷간이  
 있음 직한 곳을 이리저리 찾았으나 없었다. 집을 두 바퀴나  
 돌았으나 뒷간은 역시 없었다. ㉠대체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화산댁이는 뒷간이 없는 집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  
 으나, 일이 급해서 그만 어수룩한 담 밑에다 대고 뒤를 보았다.  
 ㉡한결 **개분했다**. 문살만 흰하면 나와서 뒤본 자리를 챙기리라  
 맘먹고 다시 들어왔다.

화산댁이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날이 활짝 샀다. 아들 내외가  
 께까 싶어 조심조심 밖으로 나왔다. 뒤본 자리는 공교롭게도  
 돌가루로 마련된 **수채**였다. 수채는 앞집으로 통했다. ㉢**아침에**  
**봐도** 역시 뒷간은 없었다.

- 화산댁이는 며느리를 욕하는 모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작은 아들 집에 힘들게 왔는데 홀대만 받고 있으니깐 말이에요. 화산댁이는 잠도 안 오지만, 뒤가 마려워서 날이 새길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뒷간을 찾아 나서죠. 하지만 뒷간이 없어요. 신시대적 집이기 때문에 뒷간 대신 화장실이 있거나 하겠죠? 하지만 화산댁이는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세대와 신세대의 비교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 아무데서나 뒤를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그것은 수채였어요. 다시 봐도 뒷간을 찾지 못하는 화산댁이의 모습입니다.
- 구세대의 화산댁이와, 신세대인 아들 내외의 비교로 작품이 전개되고 있어요. 구세대인 화산댁이가 홀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만 잘 파악하셨다면 돼요.

22. '화산댁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선지>

④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아들을 못마땅해 한다.

- 네, '화산댁이'는 아들에게 할 이야기가 산처럼 쌓여 있지만 아들은 빨리 자라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화산댁이는 자꾸만 쓸쓸했다.', '자식도 강보에 자식이지, 쫓쫓' 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들을 못마땅해하는 '화산댁이'의 모습입니다.

<오답 선지>

① 작은아들이 내놓은 고무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아들은 손끝에 짚세기를 걸고 나가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고무신을 주었죠. '화산댁이'는 고무신이 대견찮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짚세기가 아깝다고 하고 있어요. 고무신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는 않습니다. 짚세기를 아까워 할 뿐이에요.

② 꿀밤떡을 내뱉는 손녀의 행동에 노여움을 느낀다.

- 손녀는 자신이 해온 꿀밤떡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 노여움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손녀의 행동에 '화산댁이'의 심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③ 예의가 없는 며느리를 나무라고자 마음먹는다.

- '화산댁이'는 예의가 없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 조면 그 만이지'라고 하고 있어요. 며느리를 나무라고자 마음먹지는 않습니다.

⑤ 시골로 돌아갈 생각에 설레서 날이 빨리 새기를 바란다.

- '화산댁이'는 뒤가 마려워서 날이 빨리 새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시골로 돌아갈 생각에 설레서 날이 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23. [A]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선지>

- ㉔ 현재 상황과 대비되는 장면을 통해 내적 갈등을 고조한다.
- 네, 현재 작은아들에게 홀대받는 상황과 대비되는 장면이죠. 만나 들네와 사이 좋게 지내는 모습이에요. 이를 통해 화산택이의 내적 갈등을 고조시킵니다.

<오답 선지>

- ㉑ 새 인물의 등장을 통해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린다.
- 이 부분에서 ‘만아들’, ‘만며느리’ 등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지는 않아요. 단순한 화산택이의 생각입니다.
- ㉒ 환상적 배경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허구성을 강화한다.
- 지금 [A]의 배경을 환상적 배경이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현실적 배경으로 봐야 합니다. 사건이 허구적이지도 않아요.
- ㉓ 사건의 줄기에서 벗어난 장면을 통해 위기감을 해소한다.
- 사건의 줄기에서 벗어난 장면이 아니죠. 지금 화산택이가 작은아들 집에서 홀대를 받자 화산택이가 생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건의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위기감을 해소하지도 않아요.
- ㉔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병치를 통해 사건을 지연시킨다.
- 사건의 병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2개 이상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병치되지도 않아요.

24. <보기>를 참고할 때, ㉑~㉔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보 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거나, 인물의 시각에서 인물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여 서술한다. 즉 ‘서술’은 서술자가 담당하지만 ‘시각’은 서술자의 것일 수도, 인물의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정답 선지>

- ㉓ ㉔
- 서술의 시각이 서술자의 것일 수도 있고, 인물의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이 5개 중에 서술의 시점이 다른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㉓번이죠? 나머지는 다 화산택이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지만, ㉓번 선지는 서술자가 뒷간이 있을 리 없다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의 소재를 대비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화산택이』는 시골과 도시, 자연과 문명 세계라는 이질적인 공간에서 영위되는 삶의 양식을 대비한 작품이다.

<정답 선지>

- ㉔ 수채 : 뒷간
- 시골과 도시가 대비되는 것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수채는 화산택이가 뒤를 본 자리예요. 하지만 뒷간은 아니죠. 수채는 뒷간을 찾지 못한 화산택이가 어쩔 수 없이 뒤를 본 자리이지, 뒷간과 비교되는 공간은 아닙니다.

[26~29]

S#01

일일은 승상이 술에 취하시어 ㉔책상에 의지하여 잠깐 졸더니 문득 봄바람에 이끌려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승상이 평소에 고기도 낚으며 풍경을 구경하던 조대(釣臺)\*라. 그 위에 상서로운 기운이 어렸거늘 나아가 보니 청룡이 ㉕조대에 누웠다가 승상을 보고 고개를 들어 소리를 지르고 반공에 솟거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라.

- “승상이라는 ‘인물’이 꿈을 꿔다가 깬 상황이라는 걸 S#01에서 잡을 수 있어요. 꿈에 나온 장소는 승상이 평소에 가던 ‘조대’인데 꿈에서 그곳에 어린 ‘상서로운 기운’과 ‘청룡’을 보는 등, ‘조대’라는 ‘공간’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S#02

심신이 황홀하여 죽장을 짚고 월령산 ㉖조대로 나아가니나무 베는 아이가 나무를 베어 시냇가에 놓고 버들 그늘을 의지하여 잠이 깊이 들었거늘, 보니 의상이 남루하고 머리털이 흩어져 귀 밑을 덮었으며 검은 때 줄줄이 흘러 두 뺨에 가득하니 그 추레함을 측량치 못하나 그 중에도 은은한 기품이 때 속에 비치거늘 승상이 깨우지 않으시고, 옷에 무수한 이를 잡아 죽이며 잠 깨기를 기다리더니, 그 아이가 돌아누우며 탄식 왈,

“㉗형산백옥이 돌 속에 섞였으니 누가 보배인 줄 알아보랴. 여상의 자취 조대에 있건마는 그를 알아본 문왕의 그림자 없고 와룡은 남양에 누웠으되 삼고초려한 유흥숙의 자취는 없으니 어느 날에 날 알아줄 이 있으리오.”

하니 그 소리 웅장하여 산천이 울리는지라. 탈속한 기운이 소리에 나타나니, 승상이 생각하되, ‘영웅을 구하더니 이제야 만났도다.’ 하시고, 깨우며 물어 왈,

“봄날이 심히 곤한들 무슨 잠을 이리 오래 자느냐? 일어났으면 물을 말이 있노라.”

“어떤 사람이관대 남의 단잠을 깨워 무슨 말을 묻고자 하는가? 나는 배고파 심란하여 말하기 싫도다.”

아이 머리를 비비며 군말하고 도로 잠이 들거늘, 승상이 왈, “네 비록 잠이 달지만 어른을 공경치 아니하느냐. 눈을 들어 날 보면 자연 알리라.”

그 아이 눈을 뜨고 이윽히 보다가 일어났으며 고개를 숙이고 잠잠하거늘, 승상이 자세히 보니 두 눈썹 사이에 천지조화를 갈무리하고 가슴속에 만고홍망을 품었으니 진실로 영웅이라. 승상의 ㉘명감(明鑑)\*이 아니면 그 누가 알리오.

- 조대가 꿈에 나오자 ‘심신이 황홀’했던 승상은 실제로 ‘조대’에 가고 있네요. 그런데 조대에는 ‘나무 베는 아이’가 있어요. 조대에 자는 아이의 외양 묘사(의상이~가득하니)도 체크 하면서 갑시다. 또한 [그 추레함을 측량치 못하나 ~ 기품이 때 속에 비치거늘]이라는 표현은 아이가 추레한 모습 속에서도 영웅의 기품을 내뿜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 그런 아이를 승상은 깨우지 않고 기다리는데, ‘아이가 돌아누우며

탄식 섞인 잠꼬대를 해요. “어느 날에 날 알아줄 이 있으리오”라고요. 이를 들은 승상은 아이를 깨우고 그를 자세히 보며, 이 아이가 영웅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네요.

S#03

[중략 부분의 줄거리] 승상은 아이(소대성)를 자기 집에 목계 하고 딸과 부부의 연을 맺도록 하지만, 승상이 죽자 그 아들들이 대성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에 대성은 영보산으로 옮겨 공부하다가 호왕이 난을 일으킨 소식에 산을 나가게 된다.

한 동자 마중 나와 물어 왈,  
 “상공이 해동 소장공 아니십니까?”  
 “동자, 어찌 나를 아는가?”  
 소생이 놀라 묻자, 동자 답 왈,  
 “우리 노야의 분부를 받들어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노야라 하시는 이는 뉘신고?”  
 “아이 어찌 어른의 존호를 알리이까? 들어가 보시면 자연 알리이다.”

-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 작가가 쓰는 것이 아니라, 평가원이 쓰는 것입니다. 쓸데 없는 정보는 주지 않으니 모든 문장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읽어야 해요. 살펴보니, 승상은 소대성을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키네요. 그런데, 승상이 죽자 소대성은 승상의 아들들에 의해 위기에 빠지고 자신의 거처를 영보산 옮겨 공부하다가, 호왕이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에 이를 진압하고자 나오네요.
- 새로운 인물인 동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동자는 소대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노야’라는 인물로 소대성을 안내하고 있네요. ‘새로운 사건의 시작’으로 인지해주셔야 합니다.

S#04

생이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청산에 불이 명랑하고 한 노인이 자춧빛 도포를 입고 금관을 쓰고 책상을 의지하여 앉았거늘 생이 보니 학발 노인은 청주 이 승상일러라. 생이 생각하되, ‘승상이 별세하신 지 오래이거늘 어찌 ㉙이곳에 계신가?’ 하는데, 승상이 반겨 손을 잡고 왈,

“내 그대를 잊지 못하여 줄 것이 있어 그대를 청하였 나니 기쁘고도 슬프도다.”

하고 동자를 명하여 저녁을 재촉하며 왈,  
 “내 자식이 무도하여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의사를 두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하나 그대는 대인군자로 허물치 아니할 줄 알았거니와 모두 하늘의 뜻이라. 오래지 아니하여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르면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말라.”

하고 갑주 한 벌을 내어 주며 왈,  
 “이 갑주는 보통 물건이 아니라 입으면 내게 유익하고 남에게 해로우며 창과 검이 뚫지 못하니 천하의 얻기 어려운 보배라. 그대를 잊지 못하여 정을 표하나니 전장에 나가 대공을 이루라.”

생이 자세히 보니 쇠도 아니요, 편갑도 아니로되 용의 비늘

같이 광채 찬란하며 백화홍금포로 안을 대었으니 사람의 정신이 황홀한지라. 생이 매우 기뻐 물어 왈,  
 “이 옷이 범상치 아니하니 근본을 알고자 하나이다.”  
 “이는 천공의 조화요, 귀신의 공역이라. 이름은 ‘보신갑’이니 그 조화를 헤아리지 못하리라. 다시 알아 무엇 하리오?”

- 소대성이 동자를 따라가 들어가 보니, 그 노야는 ‘승상’이었어요. 즉 승상과 재회를 한 겁니다. 승상은 소대성을 반기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본인 아들들의 행동을 사과함은 물론이거니와 ‘보신갑’이라는 선물까지 주네요. 승상이 ‘보신갑’을 줌으로써, ‘영웅 소대성을 완성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 잘 읽은 겁니다.

S#05

승상이 답하시고, 차를 내어 서너 잔 마신 후에 승상 왈,  
 “이제 칠성검과 보신갑을 얻었으니 만 리 청총마를 얻으면 그대 재주를 펼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당당한 기운을 견잡지 못하리라. 하나 적을 가버이 여기지 말라. 지금 적장은 천상 나타의 제자 익성이니 북방 호국 왕이 되어 중원을 침노하니 지혜와 용맹이 범인과 다른지라. 삼가 조심하라.”  
 “만 리 청총마를 얻을 길이 없으니 어찌 공명을 이루리까?”  
 생이 묻자, 승상이 답 왈,  
 “동해 용왕이 그대를 위하여 이리 왔으니 내일 오시에 얻을 것이니 급히 공을 이루라. 지금 싸움이 오래되었으나 중국은 익성을 대적할 자 없으며 황제 지금 위태한지라. 머물지 말고 바빠 가라. 할 말이 끝없으나 밤이 깊었으니 자고 가라.”  
 하시고 책상을 의지하여 누우시니 생도 잠깐 졸더니, 홀연 찬 바람, 기러기 소리에 깨달으니 승상은 간데없고 누웠던 자리에 갑옷과 투구 놓였거늘 좌우를 둘러보니 ©소나무 밑이라.

- 승상이 이제 ‘청총마’만 얻으면, 비로소 재주를 펼칠 수 있다며, ‘동해 용왕’에게 가라고 조언해주고 있어요. 이후 소대성은 잠이 드는데, 일어나보니, 승상에게 받은 갑주(갑옷과 투구)는 놓여 있는데, 장소는 ‘소나무 밑’이었습니. 즉 ‘꿈’이라는 초현실 공간이 현실 공간과 번갈아 가면서 등장했던 거였네요.
- [중략 이전]에는 승상이 소대성이 영웅임을 알아보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중략 이후]에는 죽은 승상이 위기에 처한 소대성을 도와 줌으로써, 비로소 영웅을 완성하는 형태로 지문이 전개됐어요.

26. [A]와 [B]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선지>

① [A]는 묘사를 통해 인물의 외양을, [B]는 발화를 통해 인물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A]에서 ‘의상이 남루하고 머리털이 흩어져. ‘검은 때 줄줄이 흘러 두 뺨에 가득하니’라는 표현을 통해 인물의 외양을 묘사했죠. 지문을 읽으며 체크 했어야 합니다. [B]에서는 “내 그대를 잊지 못하여~”부분에 소대성을 만난 승상의 감회가 드러나고 있어요.

<오답 선지>

② [A]와 달리, [B]는 대구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A], [B] 모두 대구적 표현은 없습니다. 또한 [B]는 승상이 소대성을 만나 기뻐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어요.

③ [B]와 달리, [A]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A]에는 ‘요약적 서술을 통한 시대적 배경 제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요약적 서술이 되려면, 몇 개월 혹은 몇 년의 기간에 거쳐 일어난 핵심적인 내용을, 시험지 기준 2줄 내외로 서술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④ [A]와 [B]는 모두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A]와 [B]는 모두 인물의 대화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승상과 대성은 ‘갈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될 수 없어요.

⑤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을 통해 현재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A]와 [B] 모두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은 없어요. [B]에는 ‘승상 별세한 지 오래라는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또한 ‘회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7. 윗글의 '승상'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선지>

- ① 곤히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고 이를 잡아 주며 기다리는 모습에서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군.
- 승상이 '아이'를 깨우지 않고 '옷에 무수한 이를 잡아 죽이며 잠 깨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에서 승상의 따뜻한 인정을 느낄수 있겠죠. 이것만 가지고 '따뜻한 인정'이라 할 수 있냐는 질문이 많은데, 이러한 승상의 모습이 따뜻한 인정이 아니라면, '승상은 차가운 사람이냐고 반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승상의 따뜻한 인정이 드러난다고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오답 선지>

- ② 나이 어린 '소생'에게 자신이 범한 과오를 시인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에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허함을 볼 수 있군.
- 소생에게 과오를 범한 건 승상이 아니라, 승상이 아들들이었어요. 자신의 아들들의 과오를 시인하고 사과한 거였죠.
- ③ '소생'에게 '딸과의 신의'를 잊지 않아야 공명을 이룰 수 있다고 당부하는 모습에서 신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볼 수 있군.
- 5#04에서 '딸과의 신의'를 이야기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르면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말라고 한 것이지, 잊지 않아야만 공명을 이룰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 ④ '청룡마'를 이미 얻고 '동해 용왕'의 도움까지 얻은 '소생'에게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모습에서 신중한 자세를 볼 수 있군.
- 지문에서 소생은 아직 '청룡마'를 얻지 못했어요. 승상은 '동해 용왕'에게서 청룡마를 얻으라고 했죠.
- ⑤ 살아서는 '소생'을 도왔지만 죽은 몸으로 '소생'을 도울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남을 도우려는 한결같은 성품을 느낄 수 있군.
- 승상은 죽은 후에도 소대성에게 '보신갑'이라는 선물을 주는 등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8. <보기>를 참고할 때,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소설에서 공간은 산속이나 동굴 등 특정 현실 공간에 초현실 공간이 겹쳐진 것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이 경우, 초현실 공간이 특정 현실 공간에 겹쳐지거나 특정 현실 공간에서 사라지는 것은 보통 초월적 존재의 등·퇴장과 관련된다. 한편 어떤 인물이 꿈을 꿀 때, 그는 현실의 어떤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의 정신은 꿈속 공간을 경험한다. 이 경우, 특정 현실 공간이 꿈에 나타나면 이 꿈속 공간은 특정 현실 공간에 근거하면서도 초현실 공간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 <보기>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작품에서는 공간의 변화가 '현실과 초현실'로 나뉘어서 나타났어요. 그 점에 유의하며 선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선지>

- ④ ㉠은 '승상'의 정신이 경험하는 꿈속 공간이고, ㉣는 '소생'이 자기 경험이 꿈이었음을 확인하는 공간이군.
- ㉡는 승상이 ㉢를 통해 경험한 꿈속 공간을 실제로 찾아간 '현실 공간'입니다. '공간'의 변화를 정리하며 지문을 읽었다면,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오답 선지>

- ① '승상'은 ㉡에 몸을 의지하고 있지만 정신은 봄바람에 이끌려 ㉢로 나아갔으니, 그는 현실의 한 공간에서 잠들어 꿈속 공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군.
- ㉡는 승상이 자고 있는 공간은 현실 공간이고 ㉢는 꿈속 공간이니까, 승상이 현실의 한 공간에서 잠들어 꿈속 공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 ② ㉢는 ㉡에 근거를 둔 꿈속 공간으로, ㉢에서 본 '청룡'은 ㉡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상징하는군.
- ㉡와 ㉢는 모두 '조대'라는 공간이지만, ㉡는 꿈속 ㉢는 현실 공간이에요. 그런데, <보기>에서 '꿈속 공간은 특정 현실 공간에 근거한다고 했으니, 꿈속에 나타난 '청룡'이 '아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 ③ ㉡와 ㉣는 모두 초현실 공간으로, ㉢는 '승상'을 '아이'에게로 이끌기 위해, ㉡는 '소생'과 초월적 존재인 '승상'의 만남을 위해 설정된 곳이군.
- ㉡는 승상의 꿈속에 등장한 공간이니, 초현실 공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또한 승상은 그 꿈을 계기로 현실에서 조대로 나아가 아이를 만나니까 적절합니다. ㉡는 '죽은' 승상과 소대성이 만나는 공간이니까, 초현실 공간이 맞고 이 또한 적절합니다.
- ⑤ '승상'이 '누웠던 자리'에 '갓옷과 투구'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에 ㉡가 겹쳐져 있었지만 '승상'이 사라지면서 ㉡도 함께 사라졌군.

- '승상'이 '누웠던 자리'에 '승상'이 준 갑옷과 투구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승상이 사라지면서 ㉠라는 초현실 공간이 함께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29. ㉠의 화자에게 ㉡을 지닌 '승상'이 격려해 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선지>

- ㉡ '자루 속의 송곳'이라고 하듯이, 앞으로 너의 진가가 반드시 드러나 많은 사람이 너를 우러러 보게 될 거야.
- 소대성이 ㉠을 통해 "어느날에 날 알아줄 이 있으리오"라고 말했는데, 승상이 '㉡명감'으로 그를 알아본다는 내용이네요. 정답이 될 수 있는 선지는 ㉡번 밖에 없었습니다.

[30~34]

(가) 작품

(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우희 치다라 안자  
 것년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鵲)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즉  
 하여 풀덕 뛰여 내닷다가 두엄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날낸 넝식만정 에혈\*질 번 하괘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간단한 사설시조입니다.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있다가 백송골을 보고 무서워서 뛰어 내리다가 자빠졌어요. 자빠져서 피를 흘렸지만, 자기가 날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터비는 탐관오리, 파리는 힘이 없는 백성이에요. 백송골은 암행어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을 풍자하는 작품이었어요.

(나) 작품

(나)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찌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욱이 좋고 곳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戶首)\*를 시샘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깃 하느냐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가뜩이 나의 세간 풀어지게 되었는데  
 옛그제 화강도(火强盜)에 가산(家産)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중략)  
 칠석에 호미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새끼 꼬기 누가 잘 하며 섬은 누가 엮으랴  
 너희 재주 헤아려 제각기 말아 하라  
 가을건이 한 후에는 집짓기를 아니하라  
 집은 내 지으마 ㉠웁은 네 묻어라  
 너희 재주를 내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명석에 벼를 던들  
 좋은 해 구름 끼어 햇별을 언제 보랴  
 방아를 못 찼거든 거치나 거친 올벼  
 옥 같은 ㉡백미 될 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너희네 데리고 새 ㉢살림 살자 하니  
 옛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건대  
 화살을 제쳐 두고 옷 밥만 다투느냐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굶주리는가  
 ㉣죽조반(粥早飯) 아침 저녁 더 많이 먹었거든  
 은혜란 생각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생각 있는 새 일꾼 어느 때 얻어서  
 집 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겠는가  
 너희 일 애달파 하면서 ㉠새끼 한 마리 다 꼬겠도다.

- 허전, 『고공가(雇工歌)』 -

- 비교적 현대어로 적혀 있기에 구체적인 현대어 풀이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작품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화자는 고공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간이 풀어질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고공들은 생각이 없다며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도 화자는 머슴들을 데리고 살림을 살고 싶어 합니다. 화자는 죽조반을 고공들에게 더 많이 먹였지만, 고공들은 자기의 몫을 위해 다투기만 할 뿐 일을 하지 않아요. 이런 세태를 화자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 작품

(다)  
 물이 하나의 국가라면, 용은 그 나라의 군주이다. 어족(魚族) 가운데 큰 것으로 고래, 곧어, 바다 장어 같은 것은 그 군주의 내외 여러 신하이고, 그 다음으로 메기, 잉어, 다랑어, 자가사리 종류는 서리나 아전의 무리이다. 그 밖에 크기가 한 자가 못 되는 것은 수국(水國)의 만백성들이다. 그 상하에 서로 차서(次序)가 있고 대소(大小)에 서로 거느림이 있는 것은 또 어찌 사람과 다르겠는가?

이 때문에 용이 그 나라를 경영함에 가물어 물이 마르면 반드시 ㉡를 내려 이어주고, 사람들이 물고기 씨를 말릴까 염려하여 겹겹이 물결을 일렁이여 덮어 주니, 그것이 물고기에게는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물고기에게 자애로운 것은 한 마리 용이고, 물고기를 못살게 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다. 고래들은 조류를 따라가며 들이마셔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시서(詩書)로 삼고, 교룡, 악어는 물결을 다투어 삼키고 씹어 먹어 작은 물고기를 거친 땅의 농사로 삼으며, 문절망둑, 쏘가리, 드렁허리, 가물치 족속은 사이를 노리고 틈을 잡아 덮쳐서 작은 물고기를 은과 옥으로 삼는다.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지위가 높은 것은 아랫것을 사로잡는다. 진실로 그러한 행위를 싫증 내지 않는다면 물고기들은 반드시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은 뉘와 더불어 군주 노릇을 하며, 저 큰 물고기들이 또한 어찌 으스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용의 도(道)란 그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아아, 사람들은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물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을 어찌 알겠는가?

- 이옥, 『어부(魚賦)』 -

- 글쓴이는 바다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안의 물은 하나의 국가, 용은 나라의 군주라고 해요. 그리고 아주 큰 고래와 같은 물고기는 여러 신하, 그 다음으로 메기, 잉어와 같은 물고기는 서리나 아전의 무리, 그리고 나머지 크기가 한 자가 못되는 것

들은 백성들이라고 해요. 바다를 나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작은 물고기들을 못살게 구는 큰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글쓴이는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은 군주 노릇을 할 수 없고 큰 물고기들이 으스댈 수 없다고 합니다. 작은 물고기, 즉 백성들에 대한 중요함과 수탈당하는 현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에게 작은 물고기를 해치는 큰 물고기를 죽죽 물리치라고 하죠. 바다를 나라에 비유해서 이러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30.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선지>

①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 네, 세 작품 모두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가)에서는 두터비를, (나)에서는 고공들을, 마지막으로 (다)에서는 큰 물고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답 선지>

② 과거 사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드러나 있다.

- 세 작품 다 과거 사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라고 볼 만한 부분은 없어요. 작품 내용이 과거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고사(故事)를 활용하여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세 작품 다 고사를 인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어요.

④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가)와 (다)는 단순히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어요. 중략 이후 부분에서 화자는 고공들과 일을 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⑤ 특정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가)는 두터비가 백송골을 보고 도망치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장면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와 (다)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31. (나)와 (다)를 비교할 때, 문맥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정답 선지>

④ ㉠

- 비는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것이예요. 임금이 백성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이와 가까운 것을 찾으시면 돼요. 바로 ㉠이겠지요? (나)의 화자가 고공들을 위해서 주는 법입니다. 주인이 고공들에게 주는 은혜로 볼 수 있어요.

32. 밑줄 친 대상 간의 관계가 (가)의 '두터비', '파리', '백송골' 간의 관계와 가장 가까운 것은?

- (가)의 '두터비', '파리', '백송골'은 각각 탐관오리, 힘 없는 백성, 암행어사 었어요. 이와 가까운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 선지>

⑤ 장공에 떴는 술개 눈 살핍은 무슨 일인가  
 썩은 쥐를 보고 빙빙 돌고 가지 않는구나  
 만일에 봉황을 만나면 웃음거리 될까 하노라.

- 네, 술개가 장공에 떴서 썩은 쥐를 보고 빙빙 돌고 가지 않아요. 하지만 봉황을 만나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하죠. 술개는 쥐에겐 강하지만, 봉황에겐 약한 존재입니다. (가)의 대상과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답 선지>

① 닭은 때를 알리고 개는 도적을 살피고  
 소 말은 큰 구실 맡겨 다 기름 직하거니와  
 저 매는 꿩 잡아 절로 바치든가 나는 몰라 하노매라.

- 닭은 때를 알려주고, 개는 도적을 살피주고 있어요. 꿩은 매에게 잡히는 존재요. (가)의 관계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②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곁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쏘냐  
 아마도 곁 희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 까마귀는 곁은 검지만 속은 하얀 존재, 백로는 곁은 희지만 속은 검은 존재예요. 너는 백로를 지칭합니다. 까마귀와 백로를 대비하고 있어요. (가)의 대상 간 관계와는 다릅니다.

③ 나비야 청산 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 나비는 범나비와 함께 청산으로 가요. 같이 꽃에 들어가서 자고 갑니다. 사이가 좋네요. (가)의 대상과의 관계와는 거리가 멀어요.

④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 올까 하였더니  
 봉황은 아니 오고 오작만 날아든다  
 동자야 오작 날려라 봉황 오게 하리라.

- 봉황이 날아 오는 것을 기대했지만 오작이 날아든 상화임예요. 그래서 동자에게 오작을 날려보내라고 합니다. 화자의 지향과 지양이 나타나지 (가)의 대상과의 관계와는 큰 연관이 없어요.

3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공가』는 전란으로 인해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자는 의도에서 지어진 노래로, 국가 정치를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하여 관료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 고공가는 국가 정치를 비유해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정답 선지>

② '나'가 '고공'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료 사회에는 불신이 팽배했군.

- (나)의 화자는 '고공'들에게 너희 재주를 내가 짐작했다며 재주를 인정하고 있어요. '고공'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능력을 인정하지만 '고공'들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답 선지>

① '고공'이 반목과 질시를 일삼는 것으로 보아 조정에는 불화가 있었군.

- 네, '고공'은 반목과 질시를 일삼고 있어요. 국가 정치에 비유해서 쓴 작품이라고 했죠? 조정에는 불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나'는 외적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적의 재침략을 걱정하고 있군.

- 네, '나'는 도적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로 비유하면 외적의 침략을 걱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④ '나'가 집안의 일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바라는 인물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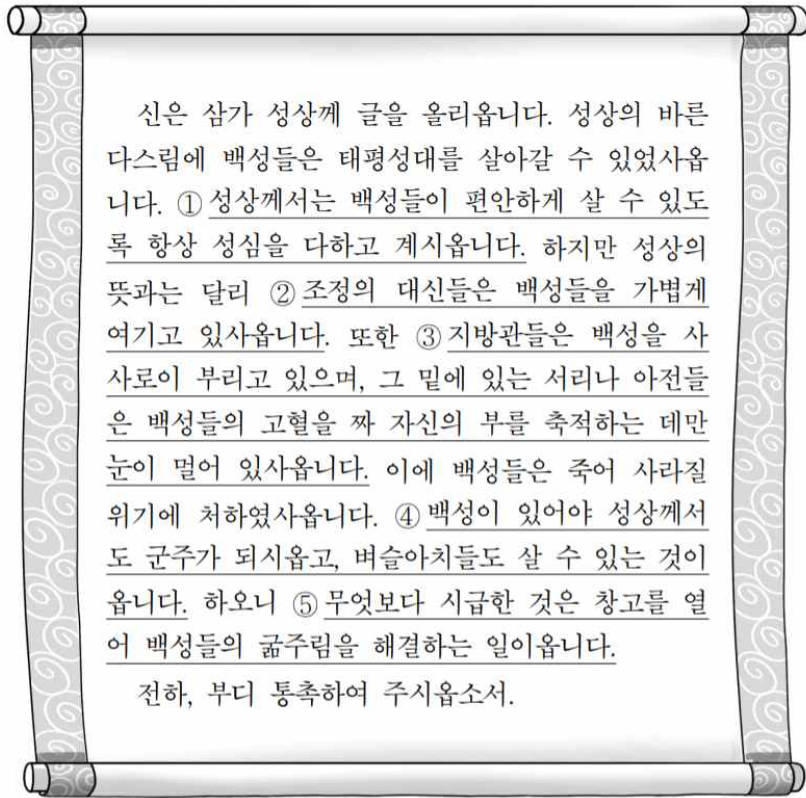
- 네, '나'는 집안의 일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가에 비유하면 황폐해진 국가 재건을 바라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⑤ '고공'이 '웃 밥'만 탐했다는 것으로 보아 관료들은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욕만을 채우고자 하였군.

- 그렇죠. '고공'들은 '웃 밥'만 탐하고 있어요. 나라에 비유하면 관료들이 물질적인 것들만 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욕만 채우고자 한 관료들의 모습입니다.



34. (다)의 논지를 긍정하는 신하가 군주에게 상소문을 올린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선지>

⑤

- 먼저 왕은 백성들이 편하게 살게 성심을 다하고 있죠. 용은 물고기들에게 비를 내려 주는 등의 성심을 다하고 있죠. 그리고 조정의 대신들은 백성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큰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들을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지방관들은 백성들을 사사로이 부리고 있죠. 큰 물고기의 행적이에요. 다음 백성이 있어야 성상이 군주가 될 수 있겠죠. 계속 (다)의 글쓴이의 의견과 맞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백성들의 굶주림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말은 (다)의 글쓴이가 하지 않아요. 이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러한 현실을 용이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태도를 보이지 백성들의 굶주림을 먼저 해결하자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 2021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1교시 국어 영역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현대시]

[1~4] <출전> 유진희, 「경이(驚異)는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도다」

김승희, 「달걀 속의 생(生) 2」

#### 1.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에서는 '복두성좌'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우리 집'을 보호해 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나)에서는 '달걀들'이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와 동일시된 대상이라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가)에서는 마지막 행에서 청유형 어미를 활용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청유형 어미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와 (나)는 모두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서는 4연의 '추운', '따스한' 등을 통해 축약적 심상의 대비가 제시되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축약적 심상의 대비가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2.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에 따라 작품 이해하기

㉠을 보면, '복두성좌'는 '우리 집'을 보호하는 주체이므로, 화자 가족의 불행을 조래하는 주체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을 보면, '천상은 가족을 보호하는 '복두성좌'가 밤마다 존재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을 보면, '그것들'은 화자가 비록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쉽게 먹을 수 없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을 보면, '노란 것들'은 '마분지과 위로', '기어오르며 생명이 느껴지는 행동'을 하는 주체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을 보면, '너희들'은 '희망소비자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팔려온'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가)에서 화자는 '아이'에게 '어서 돌아와'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하고 있으므로, '우리 집'은 화자가 가족과 함께 회귀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활용된 소재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또한 (나)에서 화자는 '냉장고'를 열고 집한 '달걀들'을 통해 자신 '역시 여권이 분실된' 것과 같은 처지임을 확인하게 되므로, '냉장고'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되는 기회로 활용된 소재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4. [출제의도] 의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는 '나'가 '부화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달걀들'이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어 있는 시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가)에서는 '거리 끝'이 '저녁 한길'로 나간 시적 화자가 보게 된 시적 대상일 뿐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어 있는 시적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는 '아이야'를 통해 시적 화자가 시적 대

상인 '아이'를 부르고 있고, (나)에서는 '너희들'을 통해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인 '달걀들'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에서는 시적 화자가 '보요안 초생달'을 통해 시적 대상인 '초생달'에 대한 시적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나)에서는 시적 화자가 '달걀들의 속삭임소리'를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에 대한 시적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에서는 화자가 '저물도록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는 시적 상황이 드러나고, (나)에서는 '우리' '형제들'이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입원비'를 '걱정'하는 것에서 '가난'한 시적 상황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는 '수유'하다고 표현된 짧은 시간을 '영위'하는 '인간'과 '무궁'하다고 표현된 끝이 없는 '우주'가 '인연'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대비되는 시적 대상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이 드러나고, (나)에서는 '살아서 즐거워 보이는' '병아리'와 '살아서 불행하다'는 '나'의 모습이 대비되어 시적 대상과 시적 화자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사회]

[5~10] <출전> 배종대 외, 「형사소송법」

#### 5.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윗글에서 자백배제법칙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9문단에서 '증명력 평가는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증명력 판단의 주체를 밝혔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증거재판주의가 '공평하고 객관적인 형사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된다'라고 하여 증거재판주의의 의미를 밝혔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예컨대 영장 없이 ~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특수과실이론의 적용 사례를 밝혔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형사법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목적을 밝혔으므로 적절하다.

#### 6.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4문단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문서는 증거능력이 있고, 8문단에서 '증거자료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즉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이 증명력이라고 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법관이 판단한 문서는 증명력이 없다. 따라서 ㉠을 보여주는 사례로 적절하다.

① 5문단에서 피고인을 강요하여 얻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8문단에서 '증거자료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증명력이라고 하였으므로 유죄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로 이용된 증거는 증명력이 있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④ 4문단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8문단에서 '증거자료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증명력이라고 하였으므로 결정적인 단서를 담고 있다고 법관에게 인정된 증거는 증명력이 있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 7.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1문단에서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2문단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증거 1]과 [증거 1-1]은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에 따라 모두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와 ~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증거 1-1]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법원이 판단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통해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배제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5문단에서 '신체적, 정신적 압박 없이 임의로 한 자백만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하였는데 법원이 [증거 2]가 '적법하게 수집되어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곧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6문단에서 '피고인, 증인 등 ~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이 전문증거라고 하였으므로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증거들이 전문증거가 아니라고 한 것은 적절하다.

#### 8.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7문단에서 '전문증거는 진술증거를 전하는 사람에 의한 편견, 조작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전문법칙의 근거'라고 하였다. 그런데 ㉠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것을 기재한 조서로 법정에서 고소당한 전담되었을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6문단에서 전문증거는 '구두로 전하는' 전문증거라고 하였는데 ㉡는 전문서류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7문단에서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전문법칙의 근거'라고 하였는데 ㉢는 진술을 필요로 하는 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7문단에서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법정에서 진술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지 못'한다는 점이 전문법칙의 근거라고 하였는데 ㉣는 법관이 진술자와 문답을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와 ㉢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법칙의 예외들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9.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9문단에서 '모순되는 증거가 ~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진다'라고 하였으므로 어느 쪽도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8문단에서 '증거자료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증명력이라고 하였고, 9문단에서 '증명력 평가는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져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9문단에서 '신빙성 없는 증인의 ~ 믿을 수도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9문단에서 법관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제출되면' 증거가치를 판단한다고 하였고, '법관은 자유롭게 증거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9문단에서 증거가치에 대한 법관의 자유 판단은 '합당한 근거를 배경으로 ~ 자의적 판단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10. [출제의도] 문맥상의 의미 파악하기

'자백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수사 방법이 자백을 얻어내는 데에만 의존하게 되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커지며 때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문장의 문맥적 의미를 통해 본다면, '자백을 얻어내는 데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진술자의 임의성을 지켜주지 않고 자백을 받아내는 데에만 의존한다는 내용이므로 '진술자의 임의성을 지키는 데에만 의존하게 되면'으로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인문·예술]

[11~16] <출전> 계몽 스톨니츠, 「미학과 비평철학」  
조지 디키, 「현대 미학」

#### 11.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와 (나)의 핵심 주제는 '미적 대상'이다. (가)에

‘준구’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가부장을 따르는 모습  
이므로 적절하다. ③ ‘저’는 ‘선생의 능하신 바’가 ‘큰  
방법’과 ‘높은 도’에는 ‘멀리 미치지 못하여’ ‘선생’이  
‘기사라는 이름을 듣는 것은’ ‘당치 않다’고 사대부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김씨’는 ‘도령의 복  
색’으로 집을 나가 ‘누명을 씻고자 하였으며’, ‘저’는  
‘남장을 하고’ ‘멀리 검객을 찾아 떠’나 ‘칼 쓰는 법을  
익혔’다고 하였으므로, 두 인물 모두 남장을 하고 현  
실의 제약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므로 적절하다.

## 【현대소설】

[26 ~ 29] <출전> 조경래, 『동백』

### 26.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은 ‘먹구름’과 ‘비’를 통해 인물들의 우울한 내면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은 ‘먹구름’을 통해 암  
울한 분위기를 비유적으로 암시하고 있으므로 적절  
하다.

### 27. 【출제의도】 인물들의 정서 이해하기

‘여공들’은 ‘경리과정’의 ‘유식한 연설’을 듣고 나서도  
‘처음 사채 동결’의 ‘소식’을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필요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여공들’이 절  
망감을 느낀 때는 ‘작업 총반장 허씨’의 ‘보충 설명’  
을 들은 다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  
하지 않다.

① ㉠에서 ‘분옥이’는 자신이 ‘삼 년에 걸쳐 모은 그  
돈’인 ‘오만 오천 원’이 ‘때어막’된다는 생각에 ‘가슴  
을 와드와득 쿨어뜰고’ 싶었으므로 적절하다. ② ㉡  
에서 ‘분옥이’는 ‘미장진 마담’이 되는 상상에 ‘정신’  
이 ‘아아아아아아아아’ ‘몸이 붕붕 뜨는 것’ 같은 기분  
을 느끼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  
에서 ‘봉자’는 ‘회사’에 넣어 ‘이자’를 받고 있었던 ‘삼  
만 원’이 ‘그렇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에 ‘겨울 새벽  
의 텅 빈 들녘’처럼 ‘허허’해 함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길순이’는 ‘어머니와 두 동생’에  
대한 격정으로 ‘자꾸 눈시울이’ ‘매워졌으므로 적절  
하다.

### 28.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여공들이 ‘각자’ ‘회사’에 ‘맡긴’ ‘그 돈의 명’의 ‘법  
적으로 총무부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경리과에서는’ 여공들의 ‘개인 카드를 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여공  
들이 ‘맡긴’ 돈을 모두 합하면 ‘꽤오십여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이번 조처로  
말미암아’ 여공들은 ‘사채 법정 이자’를 받게 되었을  
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이번 조  
처’ 이전 ‘경리과에서는’ 여공들에게 ‘매달 원금에 맞  
는 이자를 분배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  
하지 않다.

### 29. 【출제의도】 의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길순이’는 ‘내년부터는 별수 없이 신선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자취비, 사글셋방 값’ 지불, ‘집에 사천 원’  
‘송금하기’ 등의 이유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  
려 ‘관리계장’에게 사정사정해서 ‘신선놀이’보다 ‘수  
입’이 많은 ‘지옥탕’에서 견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분옥이’는 ‘만 오천 원’만 더 모아 ‘칠만 원’으로  
‘육 개월간 미용 학원’에 다니고 싶어 하므로 적절하  
다. ② ‘봉자’는 ‘질은 향수’를 느껴 돈을 벌었으며  
‘오만 원’만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리  
라 다짐하므로 적절하다. ③ ‘사장’은 ‘총무부장’과  
‘경리과정’이 싸고 ‘오 리씩 해 먹었다’는 것을 ‘뒤늦  
게 알았지만’ ‘장기간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자 그들

을 ‘용서’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정부 정책에 해당하  
는 ‘이번 조처로 말미암아’ 여공들은 ‘사 년째 되는  
해부터’ ‘회사’에 맡긴 ‘원금’을 찾게 되었으므로 적절  
하다.

## 【생활 과학】

[30 ~ 34] <출전> 신중홍 외, 『디지털 영상처리 입문』

### 30.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2문단을 통해 무손실 압축이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  
술임을 알 수 있고, 1문단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 압  
축 기술은 데이터의 용량을 줄여 주는 기술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의 ‘반면 손실 압축은 ~ 높은 압축 효율을  
얻을 수 있어’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 파일 형식이  
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의  
‘무손실 압축은 ~ 복원이 가능하다.’를 통해 알 수 있  
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의 ‘손실 압축은 중복되거  
나 ~ 데이터를 제거하여’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  
절하다.

### 31.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1문단의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 데이터의 용량은  
커지게 된다’와 ‘디지털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 용량  
을 줄여주는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이 필요하다’라  
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의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는 ~ 화소  
로 구성되며’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4  
문단의 ‘RGB 모델은 ~ 함께 표현하는데’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의 ‘화소의 수가 많  
을수록 해상도는 높아지지만’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의 ‘변경된 YCbCr 모델에서는 밝  
기 정보를 나타내는 ~ 분리하여 화소의 정보를 표현  
한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32.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7문단의 ‘그 결과 허프만 부호화 과정에서는 데이터  
를 손실시키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이미지의 데이터  
의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를 통해 ㉠에서는 데  
이터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  
절하지 않다.

① 4문단의 ‘색상 모델이 RGB 모델에서 YCbCr 모  
델로 변경되면 ~ 샘플링이 진행된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5문단의 ‘DCT란 샘플링한 화소  
의 정보들을 주파수로 변환하여’를 통해 알 수 있으  
므로 적절하다. ③ 5문단의 ‘DCT란 샘플링한 화소의  
정보들을 ~ 나타내는 과정이다.’와 6문단의 ‘양자화  
과정에서는 ~ 반올림하게 된다.’를 통해 알 수 있으  
므로 적절하다. ⑤ 7문단의 ‘허프만 부호화는 빈번하게  
~ 비트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33. 【출제의도】 핵심 개념 이해하기

4문단의 ‘그래서 샘플링에서는 밝기 정보를 나타내는  
Y는 모두 추출되고 ~ 일부만 추출된다.’를 통해 Y는  
모두 추출되지만, (가)와 (나)에서 Cb와 Cr은 일부  
만 추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샘플링 비율은 4:2:0이므로 (가)에서는 두  
번째 행에서 색상 정보가 추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J:a:b의 비율로 ~  
정보의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를  
보면 4×2 블록에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에서  
각각 한 개의 색상 정보를 추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와 (나)의 샘플링 비율은  
각각 4:2:0과 4:1:1로 다르지만, 추출된 색상 정보의  
개수는 2개로 동일하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의 ‘인

간의 눈은 밝기의 변화에는 민감하고 ~ 일부만 추출  
된다.’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3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6문단의 ‘이때 저주파 성분의 행렬값은 작은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하지만, 고주파 성분의 행렬값은 0의  
값으로 만들기 위해 큰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한다.’  
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5문단에서 ‘이렇게 분리된 저주파 성분의 절댓값  
은 고주파 성분의 절댓값보다 크다.’라고 하였고, 6문  
단의 ‘양자화 과정에서는 DCT로 얻은 행렬값을 미리  
설정된 특정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하게 된다. 이때  
저주파 성분의 행렬값은 작은 상수로 나눈 뒤 반올  
림하지만, 고주파 성분의 행렬값은 0의 값으로 만들  
기 위해 큰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한다.’라고 하였다.  
저주파 성분을 특정 상수로 나눈다는 것은 값을 줄  
이는 것이지 고주파 성분처럼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  
다. 따라서 양자화 과정을 거쳐 @가 0의 값이 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6문단을 통해 ㉠의 절댓  
값은 ㉡의 절댓값을 미리 설정된 특정 상수로 나눈  
뒤 반올림한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  
지 않다. ④ 5문단의 ‘DCT가 수행되면 ~ 고주파 성  
분은 행렬의 오른쪽 아래로 모여’를 통해 ㉢와 ㉣는  
저주파 영역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6문단의 ‘이때 저주파  
성분의 행렬값은 ~ 0의 값으로 만들기 위해 큰 상  
수로 나눈 뒤 반올림한다.’를 통해 ㉤의 절댓값은 0임을  
알 수 있고, ㉠의 절댓값은 0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화법과 작문】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 3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1문단의 ‘이렇게 QR 코드는 ~ QR 코드의 특징과 구  
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 발표를 준비했습  
니다.’에서 발표 제재의 선정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  
므로 적절하다.

### 36. 【출제의도】 매체 활용 방식 이해하기

2문단의 ‘QR 코드는 명암에 따라 ~ 바코드와 유사하  
다.’를 통해 빛을 이용하는 원리는 QR 코드와 바코  
드의 유사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발  
표에 활용한 ‘표’, 바코드와 QR 코드의 구성 및 담  
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의 ‘이 사진에서처럼 ~ 사용해 보셨을 텐데  
요.’에서 일상생활에서 QR 코드가 흔히 사용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진 1’을 활용하고 있으  
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의 ‘보신 것처럼 ~ 활용되고  
있습니다.’에서 상품 홍보, 결제, 웹 사이트 연결과  
같은 QR 코드의 다양한 용도를 알려주기 위해 ‘동영  
상’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QR 코드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진 2’를, 5문단  
에서 QR 코드를 구성하는 기능 패턴들에 대해 설명  
하기 위해 ‘사진 3’을 활용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의 ‘뒤에 게시 분들 ~ 잘 보시죠?’에서 교실  
뒤쪽까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진 2’  
의 크기를 조절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37. 【출제의도】 청중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은 위치 탐지 패턴, ㉡는 타이밍 패턴, ㉢는 정렬  
패턴, ㉣는 모듈이다. 4문단에서 모듈의 수가 늘어나  
면 QR 코드의 크기가 커지지만, 더 많은 정보를 담

을 수 있는 영역은 위치 탐지 패턴이 아니라 인코딩 화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5문단에서 위치 탐지 패턴은 QR 코드가 어떤 방향으로 놓여 있어도 쉽고 빠르게 인식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5문단에서 타이밍 패턴은 다른 모듈들의 위치 정보와 QR 코드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5문단에서 정렬 패턴은 QR 코드가 곡면 등에 인쇄되어 일그러진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5문단에서 위치 탐지 패턴, 타이밍 패턴, 정렬 패턴이 기능 패턴에 속한다고 하였고, 기능 패턴이 QR 코드가 효율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진행자의 역할 이해하기**

(가)의 '학생 1'의 발화에서는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생각을 유도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지난번 모임에서 ~ 이야기하기로 했잖아.'라고 하며 지난 활동에서 결정된 주제를 환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우선 한 명씩 ~ 먼저 이야기해 볼래?', 두 번째 발화에서 '이번에는 내가 먼저 얘기해 볼래?'라고 하며 발언자의 순서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1'은 두 번째 발화에서 '다른 사람들 ~ 서로 생각이 다르구나.', 세 번째 발화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 입장에서 나눠는구나.'라고 하며 대화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1'은 네 번째 발화에서 '오늘 나는 이야기를 ~ 다음 모임 때 발표해 보자'라고 하며 다음 모임의 활동 내용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의 '학생 3'은 '물론 많은 사람들은 ~ 모습을 응원했지.', [B]의 '학생 2'는 '진정한 영웅이 ~ 말에는 동의'한다며 모두 상대방이 한 말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A]의 '학생 3'은 '하지만 법 또한 ~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B]의 '학생 2'는 '영웅의 정의로움을 ~ 정의로웠다고 생각해.'라고 하며 상대방과 다른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파악하기**

(나)의 1문단에서 "영웅"이라고 하면 ~ 떠올릴 것이다."라고 (가)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영웅의 일반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영웅보다 정의로운 홍길동의 행동을 부각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의 1문단에서 '부정부패한 권력층의 ~의적 활동을 펼쳐'라고 (가)의 '학생 2'와 '학생 3'이 언급한 내용을 활용하여 불의에 맞서 약자들을 돕는 홍길동의 영웅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학생 2'의 세 번째 발화에 드러나는 '나는 홍길동의 행동이 ~ 정의로웠다고 생각해.'라는 '학생 2'의 견해에 공감하며 홍길동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음을, (나)의 2문단에서 '그러나 친구들과 ~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3문단에서 '예를 들어 재난 현장 ~ 영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례를 제시하며 오늘날의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4문단에서 '이번 동아리 활동은 ~ 좋은 기회였다.'라고 (가)에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며 홍길동의 영웅적 면모와 진정한 영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활동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고쳐쓰기**

초고는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마

무리 되어있는데 (나)에서는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게 되었다'로 수정되어 글쓴이의 다짐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내가 결심한 내용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마무리하는 건 어때?'라는 조언이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초고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에서 의미가 중복되어 사용된 어휘 중 '수용하는'이 삭제되어 (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초고에서 주제에서 벗어난 '고전을 읽으면 ~ 도움이 된다.'라는 문장이 삭제되어 (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글쓴이의 생각이 확장되었음을 드러내는 '나아가서'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제목과 관련해 글쓴이는 (나)의 3문단에서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했으나, 초고에는 봉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이에 조언에 따라 '봉사할 수 있는'이 추가되어 (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작문 계획 이해하기**

(가)의 결론에는 본문에서 서술한 설문 조사 결과인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면에 대한 인식과 수면 실태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으나, 수면 실태가 수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서론에 조사 대상, 방법, 기간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수면에 대한 인식과 수면 실태로 항목을 나누어 조사했음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수면에 대한 인식과 수면 실태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학생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추가 질문을 했음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본문에서 설문 결과를 백분율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판단하기**

[자료 3]에서 각성 효과는 카페인의 섭취로 인해 뇌의 활동이 억제되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이며 각성 효과로 인해 제시간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고, [자료 2]에서는 멜라토닌과 각성 효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성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해결책으로 추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자료 1-②]는 국가별 고등학생 평균 수면 시간을 보여주는 표이므로 외국 학생들과 비교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하다. ② [자료 2]는 빛의 노출에 따른 멜라토닌 분비량의 변화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므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빛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③ [자료 3]은 카페인으로 인해 제시간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자료 1-③]는 인체의 면역력과 관련된 T세포의 수치가 수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자료 2]는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이 면역 기능 유지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수면의 양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표현하기**

'충분한 시간 동안 깊이 자는 잠은 건강한 삶을 위한 지름길입니다.'에서 수면의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하다는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지름

길입니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는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수면의 양이 중요하다는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수면의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하다는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5. [출제의도] 작문 맥락 고려하여 글 이해하기**

(가)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나)에서는 (가)에 제시된 설문 조사 결과와 잠과 면역력과의 관계, 잠과 관련된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특징 등의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가)에는 예상 독자에 대한 글쓴이의 당부가 드러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문제 상황에 대해 글쓴이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나)에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글쓴이의 구체적인 경험은 (가)와 (나)에 드러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제목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가)에만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언어와 매체]**

35	⑤	36	④	37	①	38	②	39	①
40	③	41	③	42	②	43	③	44	④
45	⑤								

**35. [출제의도] 용언의 활용 이해하기**

'울렀네'는 어간 '울리-'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 종결 어미 '-네'가 결합하여 활용된 용언이다. 따라서 '울렸네'는 ㉠에 속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끝내겠습니다'는 어간 '끝내-'와 선어말 어미 '-겠-',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종결 어미 '-습니다'가 결합하여 활용된 용언이므로 적절하다. ② '준비하기'는 어간 '준비하-'와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결합하여 활용된 용언이므로 적절하다. ③ '들어가신'은 어간 '들어가-'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선어말 어미 '-시-', 어말 어미 '-니'가 결합하여 활용된 용언이므로 적절하다. ④ '계신'은 어간 '계시-'와 관형사형 전성 어미 '-니'가 결합하여 활용된 용언이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연결 어미 이해하기**

㉠의 '-고'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나열의 의미 관계로 이어 주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다. ㉡의 '-어'와 ㉢의 '-고'는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이라는 의미를 가지도록 이어 주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의 '-고'와 ㉤의 '-어'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이어 주는 보조적 연결 어미이다.

**37.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확인된 문제'의 사례에서 '출력된 자료'는 '표기된 자료'의 '표준 발음'이 그대로 출력되어 있다. 따라서 '표기된 자료'와 '출력된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하면 프로그램이 분석하지 못한 음운 변동 현상을 알 수 있다. 먼저 '끊어지다[끄너지다]'에는 'ㅎ 탈락'이, '암탉[암탁]'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데, 프로그램은 음운의 탈락 현상을 분석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없애다[업:애다]'에는 '된소리되기'가, '피붙이[피부치]'에는 '구개음화'가, '웃어른[우더른]'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데, 프로그램은 음운의 교체 현상을 분석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분석하지 못한 음운 변동 현상은 ㉠, ㉡이다.

**38. [출제의도] 단어의 구조 파악하기**

'사례 1'에서 ㉠은 접사인데, 학생들의 반응에서 ㉡을 어근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접사로 알고 있는 학생들보다 더 적으므로,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복'은 접사 '한-'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접사인 ㉡이 쓰인 예로 적절하다.

① '사례 1'에서 ㉠은 접사로,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한번'은 어근 '한'과 다른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접사인 ㉡이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③ '사례 2'에서 ㉡은 어근으로,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하지만 '떡이'는 어근과 접사 '-이'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어근인 ㉡이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④ '사례 2'에서 ㉡은 어근으로,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미닫이'는 어근과 접사 '-이'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어근인 ㉡이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⑤ '사례 3'에서 ㉠은 접사로,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알사탕'은 어근 '알'과 다른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접사인 ㉡이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불휘'에는 받모음 'ㅣ'로 끝난 체인 '불휘' 뒤에 주격 조사가 ㉠(영형태)로 실현되어 주격 조사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식미'에는 자음으로 끝난 체인 '실' 뒤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해 체인의 끝소리가 연음되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브르매'는 명사 '브름'에 조사 '애'가, '마르래'는 명사 '마를'에 조사 '애'가 결합하고 있으며 이때 '애'는 현대어 풀이에서 부사격 조사 '에'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하느니'는 현대어 풀이에서 ' 많으니'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브르'에는 명사 '를'의 끝소리 'ㄹ'을 조사 '은'의 첫소리로, '바르래'에는 명사 '바를'의 끝소리 'ㄹ'을 조사 '애'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내히'에는 끝소리에 'ㅎ'을 가진 체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인 '이'를 만나 'ㅎ'이 연음되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징 이해하기**

인터넷 매체인 (다)는 인쇄 매체인 (나)와 달리 실시간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댓글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가)와 (나) 모두 글자 크기의 차이를 통해 제목과 구체적인 정보를 구분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와 달리 (나)는 문자 언어와 이모티콘이 함께 나타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는 동일한 이미지의 나열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와 달리 (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1. [출제의도] 광고의 특성 이해하기**

공기 청정기의 기능과 관련된 용어인 'CADR'의 의미와, 이번에 출시된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두 배 높은 CADR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기능적 특징을 제시한 부분은 사실적인 정보만 활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는, 플라스틱 빨대가 바다 생물에 위협이 된다는 환경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줄이라고 설득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는, 공기 청정기의 기능을 제시하여 상품의 판매에 촉진되도록 설

득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다)의 하단에는 '○○일보'라는 언론사 명칭과 '김△△'라는 기사 작성자 이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다)의 '건강 기능 식품 전문 기업 ○○사, '○○헬스' 출시'는 표제, '감태 추출물 활용하여 불면증 개선에 효과적'과 '하루 한 알로 피로 회복 효과까지'는 부제, '건강 기능 식품 전문 기업 ○○사는 ~ 피로 회복 효과도 있다.'는 전문으로, (다)는 기사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광고문의 언어적 표현 이해하기**

㉠에서 '두 배'의 '두'는 수 관형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지구 환경도'의 보조사 '도'는 '살릴'의 대상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때문이다'의 의존 명사 '때문'은 '감태 추출물'이 '효과'의 원인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접속 부사 '그래서'는 앞 문장과 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이름'의 대명사 '이'는 앞에서 언급한 '판매될' 제품을 지시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 내용 추론하기**

[C]에서 '지혜'의 '근데 윤일이가 올린 동영상' ~ 내용이 겹쳐.'를 보면, 지오가 올린 동영상에 어르신께서 장수 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혜영'의 '그러고 보니 ~ 제작 목적에 대한 설명이구나!'를 보면, '혜영'이 올린 기사문에는 장수 의자 제작 목적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B]에서 '호상'의 '사진이 너무 흐릿해서 잘 안 보여.'와, '윤일'의 '이게 원본인데 확인해 볼래?'와, '지혜'의 '이게 더 잘 보인다.'를 보면, 실시간으로 공유된 사진보다 '윤일'이 올린 장수 의자 사진의 화질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D]에서 '호상'의 '그러면 편집은 내가 할게.'와, '지혜'의 '그럼 내가 너 대신 ~ 익숙할 테니까.'를 보면, '지혜'가 올린 역할 분담에는 '지혜'와 '호상'이 각각 슬라이드 제작자와 발표자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E]에서 '지혜'의 '그러면 장수 의자 홍보 그림의 출처는 못 찾았어.'와 호상의 '아, 미안해. 그 출처는 이거야. 여기 주소 보낼게. http://www.◇◇.go.kr'를 보면, '호상'이 올린 장수 의자 홍보 그림에는 인터넷 주소인 출처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매체 자료 내용 분석하기**

(나)에서 '윤일'의 '할아버지 말씀은 글로 ~ 있을 것 같아.'를 보면, ㉠에서 활용되어야 할 사진 속 장수 의자에는 '무단 횡단 금지'가 '잠시 쉬어 가세요.'보다 더 크게 적혀 있어야 하는데, <보기 2>에서 실제 활용된 사진에는 '잠시 쉬어 가세요.'가 '무단 횡단 금지'보다 더 크게 적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에서 '지오'의 '우선 각 ~ 필요가 있겠어.'를 보면, 중심 화제를 이어 주는 말을 중심 화제보다 글자 크기를 작게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해 <보기 2>에서 바르게 수정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지오'의 '더불어 중심 화제들의 ~ 좋을 것 같아.'를 보면, 제시 순서에 맞게 중심 화제에 번호를 달아야 하는데, 이를 반영해 <보기 2>에서 바르게 수정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혜영'의 '그러면 윤일이가 올린 동영상'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해서 ~ 제시할 필요는 없잖아.'와, '윤일'의 '할아버지 말씀은 글로 정리하고'를 보면, 할아버지는 그림으로, 할아버지 말씀은 글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해 <보기 2>에서 바르게 수정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에서 '지오'의 '그러면 개선 요구 사항이 ~ 효과적일 것 같아.'를 보면, 표제 제시된 개선 요구 사항을 원그래프로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해 <보기 2>에서 바르게 수정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매체 언어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장수 의자, 어르신들의 안전과 휴식을 책임집니다.'에서 장수 의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힘겨운 기다림은 이제 그만, 편안한 기다림은 이제 시작.'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나의 작은 관심, 지역의 큰 기쁨.'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장수 의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편안함을 위한 장수 의자, 안전함까지 드립니다.'에서 장수 의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장수 의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